

#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古記論\*

김 성 환\*\*

## 목 차

### 국문초록

- I. 머리말
- II. 고려시대 古記類의 유통
- III. 단군 神異에 대한 변증과 고기

### IV. 단군 古記類와 「고조선」조의 고기

- V.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 국문초록

「고조선」조의 고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3백년 이상의 연구사가 축적되어 있다. 그간에 여러 검토와 비판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성격부터 성립시기에 이르기까지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만큼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

「고조선」조의 고기가 담고 있는 단군신화는 단군의 어국과 향국을 역년으로 접근한 권근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변증을 통해 해석되어왔다. 17~18세기에는 변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성리학의 눈을 통해 들여다본 그 신화는 황탄하고 佛說에 둘러싸인 것으로 비판되었다. 괴력난신이 일연을 통해 神異로 전환된 앞 시대의 시선과 전혀 달랐다. 그렇지만 그들은 비판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은 단군신화를 조선 상고사의 서두에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어용학자들은 17~18세기 고기의 연구성과를 고조선 부정론에 역이용했다. 그들은 「고조선」조 고기의 단군신화를 일선동화를 위해 일본건국신화 안에서 재편하거

\* 이 논문은 흥익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 전 경기도박물관장

나, 佛說에 근거해서 승려가 허구로 지어낸 가공의 仙譚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원잡기』와 『연려실기술』에서 고기 또는 삼한고기를 전거로 실은 단군전승을 삼국시대의 것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했다.

「고조선」조 고기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비교적 근래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여전히 그 실체를 삼한고기 또는 해동고기로 검토하는 시각도 있고, 단일서명으로서의 『고기』로 검토하는 견해도 있다. “옛 기록”이라는 자의를 존중하는 견해도 있다. 그 성립시기에 대해서도 『구삼국사』와 관련해서 검토되기도 하고, 「북부여」조 고기에서 분주된 “大遼 醫州界”와 관련하여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전반 등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고려 건국 전후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론했다.

고려시대에 유통되었던 고기류의 자료에는 단군 고기류로 묶을 수 있는 5~6종의 자료군이 있었다. 그중에서 「고조선」조의 고기가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자료였다. 「고조선」조에서 고기는 『위서』와 보합의 관계에 있다. 그렇지만 그 성격에 대해서는 향후 정치한 논리와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주제어 : 「고조선」조 고기, 단군 고기류, 『삼국유사』, 『단군기』, 해동고기, 삼한고기, 일본인 어용학자

## I. 머리말

**『삼국유사』 「고조선」조(이하 「고조선」조)에서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한 神異는 ‘古記’를<sup>1)</sup> 통해 전해진다. 환인→환웅·웅녀→단군으로 이어지는 신화가 ‘고기’라는 자료에 채록되었다가 일연에 의해 『삼국유사』에 실렸다. 이후 고기는 신이를 주제로 하는 우리 역사를 담은 자료를 대표하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물론 고려와 조선 시대의 여러 자료에서 고기가 확인된다. 특히 두 사서에서의 고기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있었다. 이들 자료에서의 고기가 같은 것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지부터 서명으로 파악하는 경우는 『고기』에 두 사서에서의 고기를 포함할 수 있는지,

1) 이 글에서 ‘고기’가 “옛 기록”의 보통명사를 가리킬 경우는 ‘고기’, 서명을 지칭할 경우는 『고기』로 표기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로 특정할 수 있는지, 편찬 시기는 어떤지 등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다. “옛 기록”의 범칭이라면 두 사서에서의 고기가 일정한 흐름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각 사서에서의 고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두 사서에서의 해동고기, 삼한고기, 본국고기, 신라고기·백제고기·고려고기, 鄉古記 등을 비롯해서 諸古記로도 불린 여러 종류의 고기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고조선」조의 고기와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그렇지만 다기한 이해를 보여 全體像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sup>2)</sup>

출생을 중심으로 분류할 때, 단군전승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승 대부분은 「고조선」조의 고기에서 파생된 것이다. 신이라는 외피에 둘러싸인 황탄함에 대한 비난은 옳이 고기가 떠안았고, 합리적인 이해라는 성리학자들의 명분을 위해 고기에 실린 신이들이 변증을 통해 재해석되었다. 神人이 檀木 아래로 내려와 國人의 추대로 임금이 되었다거나(『응제시』 유형), 환인·환웅·단군을 3대 부계 계보로 파악하는 전통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환인을 중심으로 환웅과 단군을 형제로 설정한다거나(『동국여지승람』 유형), 환인의 성격에 대한 제석이라는 분주를 桓國 帝釋으로 파악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sup>3)</sup> 이 경우들에도 전거는 고기에 있었다.

변증을 통해 전승의 합리적인 인식을 하려는 시도는 이색(1328~1396)과 권근(1352~1409)에 게서부터 확인된다. 그 과정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기의 단군 御國 1500년, 『제왕운기』의 享國 1028년, 『본기』의 理 1038년을 고조선(단군조선)의 역년으로 파악한 것이다.<sup>4)</sup> 이런 접근은 단군의 신이를 싣고 있는 고기로 확대되었다. 고기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본격적인 시도는 18세기 초부터 3백여 년의 연구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변증을 통한 비판적인 검토가 주된 흐름이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에는 그 성과가 일제 식민사학자들에게 고조선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고기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논리의 근거로 역이용되기도 했다.<sup>5)</sup> 하지만 이후 이에 대한 재비

2) 『삼국유사』의 고기에 대한 검토는 주로 典據論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삼국사기』에서의 고기와 더불어 진행되었는데, 이강래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강래, 1997, 『三國史記 典據論』, 민족사; 이강래, 2007, 『三國史記 形成論』, 신서원; 이강래, 2011, 『삼국사기 인식론』, 일지사; 이강래, 2021, 『한국 고대의 시선과 시각』, 주류성. 또 전덕재는 『삼국사기』의 원전론을 다루면서 고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전덕재, 2018, 『삼국사기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전덕재, 2021, 『삼국사기 잡지 열전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고조선」조의 고기에 대한 검토는 그 중심에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고기에 대한 검토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의 전체상, 두 책 또는 각각의 책에서 인용된 고기의 유기적인 관계에 유의하며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 성과는 선행연구에서의 연구사 정리로 대체한다.

3) 김성환, 1999, 「檀君傳承의 類型(II)」 『사학지』 32, 단국사학회(김성환, 2002, 『高麗時代 檀君傳承과 認識』, 경인문화사 재수록).

4) 『양촌집』 권1, 응제시, 命題, 始古開闢東夷主.

5) 최초의 시도는 19세기 말부터 확인되고 1920년대 정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선동조

판과 함께 고기의 실체에 구체적으로 다가가려는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대체로 고기가 자의 그대로 “옛 기록”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라는 견해와 서명어로의 『고기』를 가리킨다는 것이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신라 또는 고려시대에 찬술되었다는 『해동고기』, 『삼한고기』 등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sup>6)</sup>

단군전승을 전하는 원전으로서 『위서』, 『고기』, 『(檀君)本紀』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실증적인 연구성과로 고려 초부터 고조선에서 출발하는 한 갈래의 역사계승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sup>7)</sup> 물론 고기와 『(단군)본기』 등의 자료가 관찬이 아니어서 한계 또한 분명하지만,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한 움직임은 확인한 것은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조선 역사를 전하는 고기와 『(단군)본기』 등에 대한 실체에 구체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를 고기의 연구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려시대에 ‘고기’의 유통 환경에 유의하고자 한다. 다양하게 유통되었던 古記類에서 단군 고기류, 거기에서 「고조선」조의 고기에 대한 위치를 가늠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은 조선 후기에 변증을 통해 진행된 단군 신이를 중심으로 고기의 연구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 연구자들이 고기에 실린 신이를 비판하면서도 이를 산삭하지 못한 의미를 밝히려는 것이다. 그리고 “옛 기록”의 범칭이라는 古記論의 측면에서 「고조선」조 고기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삼국유사』에 인용되어 신이를 전하는 고기의 일정한 흐름에서 「고조선」조의 고기에 대한 위치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조선」조의 고기에 대한 성격과 단군전승에 대해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질정을 빈다.

---

론을 위한 일본건국신화로의 재편에서 승려에 의해 불교가 가탁된 仙譚이라는 부정론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那珂通世, 1894, 「朝鮮古史考-朝鮮古史史籍考」 『史學雜誌』 5-3, 日本史學會; 白鳥庫吉(a), 1894,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 學習院大學輔仁會; 白鳥庫吉(b), 1894, 「朝鮮の古傳說考」 『史學雜誌』 5-12; 小田省吾, 1926, 「《謂ゆる檀君傳說に就て》」 『文教の朝鮮』 2, 朝鮮教育會; 今西龍, 1910, 「檀君の說話に就て」 『歴史地理臨時増刊朝鮮號』, 日本歴史地理學會; 今西龍, 1929, 「檀君考」 『青邱說叢』.

- 6) 『고기』는 11세기 전반부터 12세기 중반 사이에 삼국의 역사를 서술한 작자 미상의 史書로 조선후기까지 두루 유통되었다고도 한다. 김상현, 2014, 「『古記』의 사학사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74, 한국고대사학회.
- 7) 박대재, 2001, 「《三國遺事》古朝鮮條 인용 《魏書》論」 『한국사연구』 112, 한국사연구회; 박대재, 2015, 「檀君紀元和 古記」 『한국사학보』 61, 고려사학회; 박대재, 2022, 「이승휴의 국사편년과 역사 의식」 『민족문화논총』 9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II. 고려시대 古記類의 유통

896년 고려 태조의 아버지인 용건이 궁예에게 귀부하면서 밝힌 “조선·속신·변한의 땅”을 영역으로 한 국가 건설에서<sup>8)</sup> 고려의 조선에 대한 역사계승성은 이미 천명되었다. 또 『삼국사기』 찬자들은 평양에서의 단군과 관련한 사실을 『삼국사기』에 실었다. “평양은 본래 선인왕검의 땅(宅)인데, 혹은 왕의 도읍을 王險이라고 한다”는<sup>9)</sup> 분주 형식의 서술이다. 평양이 왕검과 관련한 유서 깊은 곳이라는 이해가 12세기 중반 이전부터 평양 일대에서 전해지고 있었던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仙人王儉之宅”에서의 ‘宅’은 뒤의 “王之都王險”에서의 ‘都’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어 「고조선」조의 평양성과 동일선상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그 전거 또한 고기류였을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王之都王險”에 대한 『삼국사기』 찬자의 해석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기록은 『사기』 조선열전의 “滿亡命 … 稍役屬朝鮮蠻夷及故齊燕亡命者 王之 都王險”이 원문으로<sup>10)</sup> 『삼국사기』의 기록은 두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삼국사기』 찬자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러면 서도 “왕의 도읍을 왕험이라고 한다”고 해석한 것은 앞선 선인왕검의 땅[宅]을 의식한 것이다. 여기서 ‘왕험’은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평양의 옛 지명으로 확인되지 않는데, 지명이 아니라 선인 ‘왕검’에서 유래하여 도읍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고려 건국 직전부터 확인되는 조선에 대한 인식의 범위가 고기, 『(단군)본기』 등의 것과 같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즉 구려 평양선인을 모셨던 서경에서의 묘청 난을 진압한 직후 편찬된 『삼국사기』에서조차 그곳에서 선인왕검부터의 유래를 실었던 것은 고기류에서 전해지며 괴력난신에 둘러싸인 고조선의 실체를 유교적 합리주의 인식을 앞세워 완전히 방기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드러내고 있다.

고기는 『삼국사기』가 편찬되기 이전에 우리 역사를 수록한 사서의 대표적인 위상을 가진다. 그것이 단일서명이든, 여러 종류의 고기이든, “옛 기록”을 지칭하는 범칭이든 관계하지 않는다. 단일서명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고기』가 될 것이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고기류가 될 것이다. 후자에도 몇 종류의 『고기』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삼국사기』에서 고기는 중국사서와 비교되는 위치에 있다. 고기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부식의 「진삼국사기표」에서 확인된

8) 『고려사』 권1, 태조 총서.

9)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동천왕 21년 2월.

10) 『사기』 권115, 열전55, 조선. 『삼국유사』에서도 「전한서」 조선열전을 인용하여 『사기』의 기록을 따르고 있다. 『삼국유사』 권1, 기이1, 위만조선.

다. 그는 국왕 인종의 말을 빌려 고기는 “문자가 고졸하고 사적도 빠진 것이 많아 군왕의 선악과 신하의 忠邪, 국가의 안위와 인민의 치란을 모두 들추어내어 권계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sup>11)</sup> 고기에 대한 이런 평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후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었다.

고기가 『삼국사기』의 편찬에 이용된 후 그 맥은 『삼국유사』에 이어졌다. 사실 고기에 대한 기록 역시 두 사서에서의<sup>12)</sup> 짓을 제외하면, 그 사례들은 지극히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서를 통한 고기는 이후의 역사편찬에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고려 이전의 역사를 실은 기록이 거의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록을 제외하고 『삼국사기』 편찬 이전의 사서로는 고려 초의 『삼국사』 등이 확인되는데,<sup>13)</sup> 이들 사서의 편찬에도 고기는 중요한 자료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삼국사기』를 제외하고는 전하지 않거나 逸文만 전해져 그 성격은 물론, 고려전기 역사편찬의 경향을 검토하기에 충분치 못하다.<sup>14)</sup> 이들 중에 『삼국사기』 편찬에 이용된 것들도 있었겠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삼국사기』에서 서명이 거론된 국내자료에는 최치원의 『제왕연대력』과 『최치원문집』 및 「난랑비」, 김대문의 『계림잡전』과 『화랑세기』, 고려 태조의 「장의사재문」, 김장청의 『김유신행록』(10권)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은 일단 고기와 다른 위치에 있다. 최소한 인종과 김부식의 지적대로 “문자

11) 『동문선』 권44, 表箋, 진삼국사기표.

12) 사서로서 『삼국유사』에 대한 검토는 이강래, 2005, 「『三國遺事』의 史書的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40(이강래, 2021, 앞의 책 재수록) 참조. 조선왕조실록에는 『삼국유사』를 인용하면서 그 서명으로 『三國遺事』(1회,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三國遺史』(2회, 『단종실록』 권1, 단종 즉위년 6월 기축(28일) 慶昌府尹李齊上書; 『성종실록』 권200, 성종 18년 2월 경진(10일) 同知事金宗直啓), 『三國史』(1회, 『중종실록』 권27, 중종 11년 12월 병진(10일) 韓山郡守孫世雍上疏)가 확인된다. 이중에 『三國遺史』의 경우는 단순한 오기이기보다 『삼국유사』를 사서로 이해하려는 의도적인 개작으로 보인다. 『三國史』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3) 현종 때 황주량의 『칠대사적』 36권, 문종 때 박인량의 『고금록』과 『수이전』, 예종 때 삼한 이래의 事跡을 실었을 『편년통재속편』, 홍관이 찬술한 『世紀』와 『해동비록』 등이 있다. 『칠대사적』을 『칠대실록』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하지만 事跡과 實錄은 다르다. 『칠대사적』 36권은 『고려사』의 기록대로 거란의 침입으로 실록이 불탔기 때문에 태조부터 목종까지의 사적을 찾아내고 가려서 정리한 것이다. 김갑동, 2019, 「고려의 7대사적과 태조실록」 『사학연구』 133, 한국사학회. 『편년통재』는 예종 때 송과의 활발한 교섭과 문물 수입 등을 참고할 때, 송 章衡의 저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사절요』에서 삼한 이래의 사적(사실)을 수집해서 續編을 바치라는 왕명이 있었다는 것은 『편년통재』에 대한 속편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世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편년통재속편』에서 고려 역사를 서술한 편목이라는 견해가 있다. 박대재, 2022, 앞의 글, 159쪽. 홍관은 또 왕명으로 李軌·許之奇·朴昇中·金富偈·尹譜 등과 음양술에 관한 책을 논변했던 『해동비록』의 편찬에 참여한 바 있다.

14) 『삼국사기』 편찬 이후 『삼국유사』 찬술 이전에는 의종 때 김관외가 찬술한 『편년통록』과 『왕대종록』, 고종 때 각훈의 『해동고승전』, 시기와 찬자를 알 수 없는 『왕대종족기』 등이 확인된다.

가 고졸하지도, 사적이 빠진 것도 많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자료들에 거친 글들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라 왕호에 대한 김부식의 사론에서 고기에 대한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는 최치원이 『제왕연대력』에서 거서간 등 신라 고유 이름을 왕으로 개작한 것을 비판했다. 최치원이 이렇게 한 것은 그 말이 천박하고 촌스러워 부를만한 것이 못 된다고 여겨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좌전』과 『한서』에서 초나라와 흉노의 왕호인 穀於菟와 撐犁孤塗를 남겨둔 예에 따라 신라의 방언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sup>15)</sup> 당대의 칭호를 그대로 서술하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신라의 고유 왕호를 「신라본기」에 반영하고, 김대문의 『계림잡전』을 인용해서 그 유래를 본문과 分註로 설명했다.<sup>16)</sup> 이를 통해 『삼국사기』에서 서명이 밝혀져 있는 국내자료는 최소한 고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17)</sup> 거기에 土風과 다소의 讖說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용인될 수 있었다.<sup>18)</sup> 그 자료들은 蕪拙하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고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고기로 특정된 자료 이외에 고기에 포함할 수 있는 자료들도 상당하다. ‘고기’를 드러낸 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삼국사기』에서는 앞에 그 특성을 설명하는 관칭이 덧붙이지 않은 고기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해동과 삼한을 덧붙인 해동고기·삼한고기도 인용되었다. 삼국과 관련해서는 신라고기만 확인되지만, 본국고기로 인용된 백제고기와 고려고기도 있었다.<sup>19)</sup> 이들은 고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해동고기·삼한고기 등을 고기의 원래 서명으로 보기도 한다. 해동·삼한이 我邦을

- 
- 15)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論曰. 이에 대해서는 土風에 대한 『삼국사기』 편찬자의 편사원칙이 담겼다는 견해가 있다. 이강래, 2005,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왕대력 비교 연구」 『한국사학보』 21, 53~54쪽. 이것은 확대해서 중국사서와 이에 대응하는 국내자료로서 고기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고 생각된다.
- 16)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남해차차웅 원년 3월 및 유리이사금 원년 9월;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원년 5월. 그는 『계림잡전』을 인용하여 신라의 불교 수용과 관련해서 이차돈의 순교에 대한 신이도 서술했다.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법흥왕 15년. 『계림잡전』에는 신라의 神異와 方言이 수록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李基白, 1978, 「金大問과 그의 史學」 『歷史學報』 77, 역사학회, 2~8쪽.
- 17) 고구려 멸망과 관련해서는 가연충의 말을 빌려 “900년이 되기 전에 80대장이 멸망시킬 것”이라는 『고구려비기』의 기록을 본문에 싣기도 했다.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8년 2월.
- 18) 이규보의 말을 빌린 것이지만 “역사란 세상을 바로잡는 책이어서 아주 이상한 일로 후세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동국이상국전집』 권3, 고을시, 동명왕편)”는 김부식의 생각을 감안할 때, 신라 고유 왕호와 관련한 토풍은 괴력난신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19) 본국고기를 이에 해당하는 백제와 고구려에 연결시키지 않고 我邦의 古記로 검토한 견해에 대해서는 이강래, 1997, 「三國史記와 古記」, 앞의 책 및 전덕재, 2018, 「고구려본기의 원전과 편찬」, 앞의 책 참조. 전덕재는 삼한고기 역시 ‘아방의 고기’로 파악한 반면에, 해동고기는 서명으로 파악하였다.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때, 이들은 삼국을 아우르는 범위를 가진 문헌 또는 기록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신라고기 등의 각국 고기는 해동고기 또는 삼한고기를 구성하는 하위체제로 보기도 한다.<sup>20)</sup> 그런데 諸古記의 존재는<sup>21)</sup> 고기류를 상정하게 한다.

고기가 “옛 기록”의 범칭일지, 서명일지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서부터 견해가 갈려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古人記錄’이라는 용례가 있다. 『삼국사기』 찬자는 고구려 지리지를 서술하면서 주몽에서 보장왕까지의 도읍 변천과 역년을 ‘고인기록’을 통해 실었다.<sup>22)</sup> ‘고인기록’은 고기와 같은 수준의 사료였다.<sup>23)</sup> ‘古史’도 이와 비교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영양왕 11년(600) 태학박사 이문진이 왕명으로 앞서 편찬된 백여 권의 『유기』를 산정하여 새로운 사서인 『신집』 5권을 편찬했다. 이때 『유기』는 ‘고사’로 지칭되었다. 『유기』나 ‘고사’ 모두 『신집』에 대응하고 있다. 또 의자왕에 대한 사론에서 『삼국사기』 편찬자는 “백제와 고구려는 함께 부여에서 나왔다”는 ‘고사’의 기록을 인용했다.<sup>24)</sup> 이때의 ‘고사’도 『유기』를 지칭할 수 있다면, 고기 역시 ‘고사’와 같이 특정 서명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다. ‘고인기록’과는 반대인 후자의 사례이다. 고사인 『유기』에서는 “백제와 고구려가 함께 부여에서 나왔다”는 기록을 실고 있었는데, 이것은 또 백제시조가 “혹은 동명이라고 하고 혹은 優台라고 한다”는 해동고기의 기록과<sup>25)</sup> 비교된다. 고사=유기=해동고기라는 등식도 성립할 수 있겠지만, 주목할 점은 주몽이 아니라 백제시조 東明說은 부여계 신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국유사』 「북부여」조의 고기 기록 역시 부여계 신화일 수 있고, 부루와 주몽 관련한 신화는 후대에 여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구려」조에서의 『단군기』는 「북부여」조의 고기보다 늦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기는 거칠고 불완전한 사서로 여겨졌지만,<sup>26)</sup> 『삼국사기』 편찬에 주된 사료 중에 하나로 사용되

20) 김상현, 2014, 앞의 글, 291~294쪽.

21)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효소왕 11년 7월.

22)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고구려. 그리고 ‘或云’이라는 형식으로 고국원왕 13년(343)에 서경인 평양 동황성으로 옮겼다는 기록을 소개하면서 이 설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23) 고기를 ‘古人記錄’과 관련해서 고대인이 지은 여러 책의 총칭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 강경구, 1997, 『삼국사기 원전 연구』, 학연문화사, 375~384쪽.

24)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양왕 11년 1월;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25)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26) 고기는 중국에 대한 고려 국내의 고유자료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삼국에 관한 미흡한 사서였다고 한다. 이강래, 1992, 「舊三國史論에 대한 제문제 -특히《三國史記》와 관련하여-」 『한국고대사연구』 5, 232쪽. 那珂通世는 고기를 삼국시대에 찬술된 사서의 범칭으로 파악하여 신라의 『국사』, 고구려의 『유기』와 『신집』을 『고기』와 『古典記』의 예로 들었고, 『삼국사기』에서 인용된 백제고기는 『일본서기』에서 확인되는 백제 3서를 가리킨다고 했다. 또 최치원의 『제왕연대력』은 삼국의 고기에 수록된 내용을 편년으로 묶은 것으로 이를 포함한 고기가 『삼국사기』 편찬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那珂通世, 앞의 글.

었다. 특히 중국사서에서의 잘못된 기록을 보정하는데 주요 근거로 이용되고 있음에서 그 가치가 드러난다. 고기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다. 『진삼국사기표』에서 밝혀져 있는 인종의 고기에 대한 평가와 다른 양상이다. 『삼국사기』 편찬 과정에서는 고기의 다소 거친 기록을 산삭하는 작업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규정했던 고기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서명과 저자가 밝혀져 있지 못하고, 고기라는 이름으로 인용되며 중국사서와 비교되는 국내에서 찬술된 사서” 정도만 이해가 가능하다. 거기에 다소의 토풍, 괴력난설이 섞여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삼국사기』에서 고기는 인용사례에 따라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본기의 본문에 인용되면서 중국 및 국내문헌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 『서기』의 편찬자인 박사 고흥이 다른 책에 나타나지 않고 고기에서만 전해지고 있음을 밝혀<sup>27)</sup> 백제의 역사편찬에 대한 사실을 전한 것은 그 사례 중 하나이다. 두 번째, 분주 형식으로 인용되면서 본문과 다른 異說을 소개하거나,<sup>28)</sup> 중국문헌의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했다.<sup>29)</sup> 특히 후자의 경우에 『삼국사기』 편찬자는 중국사서와 비교하여 언제나 고기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다.

세 번째, 志의 편찬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기록을 서술하는데 중국사서와 함께 주된 사료로 사용되었다. 제사지에서는 신라와 달리 고구려·백제 제사와 제례가 분명치 못해 중국사서와 함께 고기의 기록을 실었다.<sup>30)</sup>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고구려와 백제의 관직에 대해서도 고기는 중국사서와 함께 주된 사료였다.<sup>31)</sup> 악지에서는 고기를 인용해서 괴력난신의 만파식적 설화와<sup>32)</sup> 신문왕(政明王) 9년 신촌에서의 음악 연주에 대한 기록을 실었다.<sup>33)</sup> 지리지에서 고기는 고구려의 도읍과 관련

27)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근초고왕 30년 11월.

28)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儒禮尼師今 1년 10월; 권11, 신라본기5, 현강왕 5년 3월; 권41, 열전1, 김유신 상.

29)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54년 1월; 권8, 신라본기8, 효소왕 11년 7월; 권9, 신라본기9, 경덕왕 24년 6월;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18년 10월.

30)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고구려의 제사는 중국사서로 『후한서』·『북사』·『양서』·『당서』를 인용해서 동맹을 비롯해서 5건의 기록을 실었는데, 국내사서로는 고기만 인용해서 5건을 실었다. 백제의 제사는 『책부원구』의 기록만을 실었지만, 고기에서는 천지와 시조묘 제사를 실었다.

31) 『삼국사기』 권40, 잡지9, 외관.

32) 『삼국유사』의 「만파식적」조에서는 전거의 제시 없이 만파식적에 관한 설화를 신고 있는데, 『삼국사기』 악지의 사례로 그 전거가 고기였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이강래, 2021, 「『삼국유사』 기이편의 자료 수용 방식」, 앞의 책, 295쪽.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고기 기록에 대한 공유 사실을 확인하는 사례이다.

33) 『삼국사기』 권32, 잡지1, 樂. 신라고기를 인용해서 거문고의 고구려 전래 사실과 신라에서의 제작, 가야금의 유래와 신라 전래도 신고 있다. 음악에 대해서는 『통전』·『책부원구』를 인용한 고구려, 『통전』·『북사』

해서 중국사서와의 비교를 위해 두 차례 인용되었다. 우선 첫도읍인 흘승골성과 졸본이 같은 곳을 증명하기 위해 『통전』과 함께 인용되었고, 평양성과 장안을 같은 곳으로 본 『당서』와 달리 평양에서 장안으로 천도했다는 고기의 기록을 소개했다. 이때 『삼국사기』 편찬자의 입장은 어느 쪽도 따르지 않았다.<sup>34)</sup>

고려시대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와 달리 상당수의 고기류가 유통되고 있었다. 그 이름 또한 고기라고만 한 것이 있고, 그에 준하는 고기류가 있었을 것이다. 『삼국사기』에서의 古典記, 雜傳記도 고기류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이규보가 岳溪縣客舍를 시제로 지은 시에서 인용한 ‘(부계)縣古記’도 그중에 한 예이다.<sup>35)</sup> 『해동고승전』에서도 삼국의 불교 전래와 관련해서 고기가 세 차례 인용되고 있다. 「석마라난타」조에서는 고기와 함께 『耆老記』라는 자료를 통해 백제를 건국한 고구려 주몽의 아들 비류와 온조를 避流와 恩祖로 기록했다.<sup>36)</sup> 여기서의 『기리기』 또한 넓은 범위에서 고기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최자(1188~1260)는 『보한집』에서 俗傳인 문곡성과 관련한 강감찬의 출생담을 소개했는데, 그것은 상국 임유(1149~1212)의 집에 있던 기록을 실은 것이다.<sup>37)</sup> 이들도 ‘고기’라는 명칭을 가지지 않았지만, 고기류에 포함할 수 있다. 고종 때의 승려인 天頤의 『호산록』에서 신라고기, 『삼국유사』 찬술 이후이지만 민지(1248~1326)의 『금강산유점사사적기』에서 신라고기, 충혜왕 때의 승려인 了圓의 『법화영험전』에서 ‘계림고기’도 확인된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를 本史로 하는 遺事의 성격을 가진다.<sup>38)</sup> 『삼국유사』에서 『삼국사기』는 그대로도 불렀지만,<sup>39)</sup> 『삼국사』·『국사』·『三國本史』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삼국사기』에서 이해되고 있는 고기의 전제가 『삼국유사』에도 일정하게 관통했을 것이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구삼국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되는 『前三國史』도 확인되고 있어<sup>40)</sup> 『삼국사』·『국사』 등이 모두 『삼국사기』를 가리킨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삼국유사』 찬술에 『구삼국사』와 『삼국사기』가 함께 이용되었다면,<sup>41)</sup> 세 사서에서의 고기에 대한 이해와 정보도 공유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

를 인용한 백제의 음악을 실었을 뿐 고기를 인용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고기에 이에 대한 사료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34)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고구려.

35) 『동국이상국전집』 권12, 고을시, 岳溪縣客舍 次韻板上諸公詩.

36) 『해동고승전』 권1, 유통1, 順道; 釋摩羅難陀; 釋阿道.

37) 『보한집』 권상, 姜仁憲公邯贊. 이 설화는 김태현의 『동국문감』에도 실렸다.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광주목, 금천현, 인물, 門下侍中仁憲公 姜邯贊.

38) 이강래, 2005, 앞의 글; 남동신, 2007, 「三國遺事의 史書로서의 特性」 『불교학연구』 16, 불교학연구회.

39) 『삼국유사』 권3, 기이2, 南扶餘·前百濟·北扶餘.

40) 『삼국유사』 권5, 피은8, 信忠掛冠. 『대각국사문집』에서는 『海東三國史』가 확인된다.

41) 이규보는 오세문이 지은 삼백운시를 차운하면서 분주에서 『三國史』를 인용해서 東京에 蛟川이 있다고 했

고려시대 유통되고 있던 고기에 담긴 신이(괴력난설)에 대한 인식이 일정하게 공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앞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고기가 전거로 인용된 만파식적의 사례는 그 증거 중 하나이다.

『삼국유사』에서도 고기류를 인용해서 여러 신이를 전하고 있는데, 그 인용사례는 『삼국사기』보다 훨씬 복잡하다. 『삼국유사』 찬술에 보다 다양한 고기가 이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자료의 이용에서 정제되지 못한 측면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기가 인용된 곳은 본문이 10곳, 분주가 6곳, 본문과 분주에서 함께 인용된 곳이 1곳이다. 명칭에서는 고기가 10회, 신라고기·백제고기·고려고기가 각 1회, 향고기 1회, 寺中古記 2회, 寺中所傳古記 1회이다. 그런데 「황룡사구층탑」에서 확인되는 寺中記는 사중고기로 파악된다. 또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과 「대산오만진신」에서는 고기와 함께 「記云」이라 하여 「記」가 분주의 전거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 또한 고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기는 20항목에서 인용되었고, 그 내용은 고기가 12항목, 각국 고기가 3항목, 향고기 1항목, 사중고기 3항목, 사중소전고기 1항목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렇지만 고기를 특정하지 않고 인용했거나, 특정 자료를 인용하고 뒤에서 이를 고기로 부르기도 해서 고기의 인용 양상은 훨씬 복잡하다.<sup>42)</sup>

앞에 관칭을 붙인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고기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고기가 실고 있는 내용의 시대와 지역 범위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해동고기와 삼한고기는 『삼국유사』에서 확인되지 않고, 신라고기·백제고기·고려고기는 『삼국사기』에서처럼 모두 확인되는데 삼국의 각국에 해당하는 내용을 실은 문헌 또는 기록일 것이다. 「황룡사구층탑」에서의 사중고기는 “황룡사에서 전해지는 또는 황룡사와 관련된 고기”, 「대산월정사오류성중」과 「영취사」에서의 사중소전고기와 사중고기는 월정사와 영취사에서 전해지는 또는 이와 관련된 고기 정도로 이해된다. 또 「원성대왕」과 「황룡사장록」에 인용된 寺記, 「명랑신인」에서의 寺本記, 「대성효이세부모」에서의 寺中有記도<sup>43)</sup> 사중고기와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다.<sup>44)</sup>

다. 『동국이상국전집』 권5, 고을시, 次韻吳東閣世文呈詔院諸學士三百韻詩. 그런데 『삼국사기』에서는 蛟川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규보가 「동명왕편」에서 이야기한 『구삼국사』와 동일한 사서로 파악하기도 한다. 또 거기서는 「新羅記」, 「新羅樛記」도 인용되고 있다.

42) 『삼국유사』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조의 「명주오대산보길도태자전기」가 「대산오만진신」조에서 고기로 지칭되고 있어 고기가 특정자료에 대한 代稱으로도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이강래, 1997, 「三國遺事引用古記의 性格」, 앞의 책 참조.

43) 『삼국유사』 권2, 기이2, 元聖大王; 권3, 탑상4, 皇龍寺丈六; 권5, 신주6, 明朗神印; 효선9, 大城孝二世父母神文代.

44) 하지만 靈鷲寺記, 白金光寺本記 등은 구체적인 자료명이 제시되어 있어 이들과 구분되고 있다. 『삼국유사』

향고기는 『동국이상국전집』에서의 ‘현고기’와 비교할 수 있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중국문헌과 비교되는 국내문헌을 가리킨다.<sup>45)</sup> 이것은 鄉記, 鄉傳, 鄉諺 등과도<sup>46)</sup> 일정하게 통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이 新羅別記 또는 新羅古傳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어<sup>47)</sup> ‘향’은 중국에 상대되는 국내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sup>48)</sup> 이런 점에서 향고기는 해동고기·삼한고기와 비교될 수 있다. 이때 신라 별기와 신라고전은 신라본기 및 신라고기와 다른 자료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고기류로서의 향전은 특정 고문서 또는 고기와도 구분되었다. 『삼국유사』의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조는 「백월산양성성도기」를 주된 자료로 이용해서 구성되었다.<sup>49)</sup> 그런 가운데 향전과 고기의 이설이 「백월산양성성도기」와 비교하여 잘못임을 지적했다. 여기에서도 향전과 고기, 「백월산양성성도기」는 다른 자료였다.<sup>50)</sup>

『삼국유사』 찬술에서는 또 ‘古本’이라는 자료도 8곳에서 이용되었다. 고본은 분주에서 주로 잘못된 이설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의상과 원효 법사의 관음보살 친견과 범일의 굴산사 창건에 대해 신고 있는 「낙산이대성관음정취조신」에서는 고본에서 범일의 사적을 먼저 신고 의상과 원효의 사적을 그 뒤에 실은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삼국유사』에서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sup>51)</sup> 이 고본 역시 고기의 한 종류였을 가능성도 있다. 즉 『삼국유사』에서의 고본은 연대관에 비판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이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고기의 연대관에 대한 『삼국유사』의 흐름과 같다.<sup>52)</sup>

권5, 신주6, 明朗神印; 피은8, 朗智乘雲 普賢樹.

45) 『삼국유사』 권2, 기이2, 文虎王法敏.

46) 『삼국유사』 권1, 기이1, 太宗春秋公.

47) 『삼국유사』 권1, 기이1, 善德王知幾三事 및 太宗春秋公; 권3, 탐상4, 皇龍寺丈六; 권5, 피은8, 信忠掛冠.

48) 그렇다고 鄉傳과 古傳이 항상 같은 문헌을 지칭하지도 않았다. 『삼국유사』 「大城孝二世父母」조에서는 古鄉傳과 寺中有記, 古傳이 인용되었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자료를 지칭한다. 『삼국유사』 권5, 효선9,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49) 『삼국유사』 권3, 탐상4, 南白月二聖努脩夫得怛怛朴朴.

50) 『삼국유사』에서는 또 「金堂主彌勒尊像後記」(『삼국유사』 권3, 탐상4, 南月山), 「五臺山文殊寺石塔記」(탐상4, 五臺山文殊寺石塔記), 「關東楓嶽鉢淵藪石記」(권4, 의해5, 關東楓岳鉢淵藪石記) 등의 불교 관련 고문서류와 지방의 고문서류로 청도군의 都田帳傳인 「清道郡司籍」(권4, 의해5, 寶壤梨木), 「郡中古籍裨補記」(의해5, 寶壤梨木), 「雲門寺古傳諸寺納田記」(권1, 기이1, 伊西國), 이씨 집안의 문서로 여겨지는 「李磾家記」(권2, 기이2, 後百濟甄萱) 등도 확인된다. 이들은 넓은 범위에서 고기류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 글에서 검토하는 『삼국유사』에서의 고기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51) 『삼국유사』 권3, 탐상4,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

52) 『삼국유사』에서 古本의 존재에 대해서 無極의 초간본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高橋亨, 1955, 「三國遺事の註及檀君傳説の發展」 『朝鮮學報』 7, 朝鮮學會. 이에 대한 반론은 김상현에게 이루어졌다. 김상현, 1982, 「『三國遺事』의 刊行과 流通」 『한국사연구』 38. 중종 7년(1512) 중간된 『삼국유사』 정덕본에서 後註를 하면서 그 이전의 이루어진 판본(古本)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강래, 2021, 앞의 글. 하지만 이강래

『삼국유사』에서 고기에 대한 『삼국사기』의 흐름을 공유하고 있을지라도 일단 그 명칭과 용례에서 훨씬 다양하다. 이들이 단일서명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삼국유사』 자체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만큼 독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삼국유사』 찬자 역시 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사료들을 고기로 범칭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삼국의 각국 또는 寺中 등을 앞세운 고기들과 단순히 고기로 불린 사료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삼국유사』의 고기류에서도 『삼국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고기를 자료의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고조선」조를 포함하여 6곳인데, 「전후소장사리」조에 인용된 고기는 분주 형식으로 파악될 수도 있어<sup>53)</sup> 본문에 적극 인용된 것은 5곳이다.<sup>54)</sup> 이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해당 항목의 주된 사료로 인용되면서 그 항목을 이끄는 경우와 보조 사료로 인용된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고기의 가장 적극적인 인용사례라고 할 것이다. 「고조선」조에서의 고기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나머지 4가지 사례를 검토한다.

「북부여」조는 고기의 기록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위상이 절대적이다. 특히 『국사』 「고려본기」가 주된 자료로 이용된 「동부여」와 「고구려」조를 연결해주고 있다. 고기가 아니면 「북부여」조를 구성할 수 없었고, 고조선에서 고구려로의 역사계승과정을 설명하는데 다른 장치가 필요했다. 「어산불영」조는 고기, 寶林의 설, 可函의 『관불삼매경』, 『고승전』, 法現의 『서역전』, 星函의 『서역기』를 인용해서 구성되었다. 그런데 고기는 이 항목의 제목을 「어산불영」이라고 붙인 주된 사료로 이용되었고, 나머지 자료들이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있다. 「태종춘추공」조는 「당사」가 주된 자료로 사용되었다. 또 국내문헌으로 신라별기, 백제고기, 신라고전과 함께 고기가 대등한 위치에서 이용되었다. 「후백제견훤」조는 『삼국사』 본전을 주된 자료로, 견훤의 계보에 대해서는 「이비(제)가기」, 출생에 대한 이설에 대해서는 고기가 이용되었다. 고기는 『삼국사』 본전을 보조하는 위치에 있다.

「고조선」조를 제외하고 본문에 인용된 4가지 사례에서의 고기는 주된 자료로서 2회, 보조 자료로서 2회 인용되었다. 특히 「후백제견훤」조에서 고기가 백제고기와 함께 인용되고 있어 두 자료는 별개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것으로 앞서 『삼국사기』에서의 ‘제고기’의 범위를 추측하는데 단서

역시 고기일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 「원광서학」조에서 이용된 동경 안일호장 貞孝의 집에 있던 고본 『수이전』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다. 광승훈, 2011, 「『殊異傳』의 撰述本과 傳承 연구」 『진단학보』 111.

53) 『삼국유사』 권3, 탐상4, 前後所藏舍利. 물론 고기의 원문은 신이사적을 실었을 것이다.

54) 반면에 분주에 인용된 고기는 본문과 다른 이설을 소개하거나(『삼국유사』 권3, 흥법3, 阿道基羅 및 法王禁殺; 탐상4, 南白月二聖努盼夫得怛怛朴朴), 본문과 비교하여 고기의 연대관이 틀렸음을 지적하고 있다(같은 책, 탐상4, 南白月二聖努盼夫得怛怛朴朴 및 臺山五萬真身).

를 삼을 수 있다.

A. 왕이 죽었다. 시호를 孝昭라 하고 望德寺 동쪽에 장사지냈다.【『唐書』에 이르기를 “長安 2년에 理洪이 죽었다”고 했고, 諸古記에 이르기를 “壬寅年 7월 27일에 죽었다”고 했다. 그런데 『通鑑』에 이르기를 “大足 3년에 죽었다”고 했으니 『통감』이 잘못된 것이다】(『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효소왕 11년 7월).

신라 효소왕이 사망한 시기에 대해 『당서』와 『통감』은 1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는 『당서』의 기록을 따랐다. 그 판단의 기준은 ‘제고기’였다. 즉 제고기에는 “임인년(702) 7월 27일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고기’는 복수의 고기를 뜻한다. 즉 국내의 여러 고기에서는 그 시기가 한결같이 일치했다. 그렇지만 ‘제고기’가 어떤 종류의 고기를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모두를 가리키는 고기류일 수 있고, 관형사를 덧붙인 ○○고기일 수도 있으며, 관형사가 덧붙지 않은 고기류를 지칭할 수도 있다. 『삼국유사』 「태종춘추공」과 「후백제견훤」조의 백제고기와 고기는 ‘제고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몇몇 자료에서 고기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에 대한 접근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인용된 고기를 통해 가능하다. 두 사서는 고기에 대해 공유하던 흐름이 있었다. 무엇보다 고기에 대한 신뢰가 그것이었다. 그렇지만 두 사서에서 인용된 고기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거의 없다.<sup>55)</sup> 고기가 중국사서와 비교하여 국내사서를 대표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졸하다는 인종의 평가 달리 『삼국사기』 편찬에서 고기는 사료로서 적극 이용되었다. 『삼국사기』는 대체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서술 및 해석에 고기를 인용했다. 반면에 『삼국유사』에서는 神異事跡에 대한 부분이 많았다. 『삼국사기』에서 만파식적에 대한 신이를 “비록 이 설을 신지만 괴이해서 믿을 수 없다”면서도 고기를 인용해서 서술한 것이 『삼국사기』의 고기 인용 사례에서 오히려 특별했다. 본사와 유사의 차이로, 『삼국사기』에서 고기를 인용하면서 합리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그 내용에 대한 산삭을 했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차이는 분명했다.

55) 두 사서에서 고기를 함께 인용한 사례는 만파식적을 제외하고 『古典記』가 유일하다. 이를 인용하여 백제 온조부터 의자왕까지의 도읍 변천과 역년을 서술하고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삼국유사』의 기록이 『삼국사기』의 기록을 참고하여 追補하거나 축약하여 신고 있다. 『삼국유사』 권2, 기이2, 「南扶餘前百濟北扶餘」 및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백제. 앞서 언급한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고구려의 국초부터 장수왕까지의 도읍 변천과 역년에 대한 기록은 전거인 古人記錄도 『고전기』를 가리킬 수 있다. 『고전기』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편자가 『구삼국사』와 『고기』를 이용하여 백제의 건국과 천도기사를 정리한 『삼국사기』 초고본이란 견해도 있다. 高寬敏, 1996, 『『三國史記』의原典的研究』, 雄山閣.

고기에 실린 연대관에 대해서도 두 사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삼국사기』에서는 고기에 실린 연대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인 반면에 『삼국유사』에서는 비판적이었다. 이것은 고기에 대한 『삼국유사』 찬자의 신뢰와 관련될 수 있는 문제였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삼국유사』 찬자는 고기가 전하는 역사와 불교에 대한 신이사적에 주목했다. 그것은 괴력난신의 전설을 신이사적으로 변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sup>56)</sup> 그런 까닭에 연대관에 대한 오류는 고기의 전체상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었다. 다른 자료로 보정되면 신이사적은 보다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두 사서에서 인용된 고기가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같은 성격의 자료였을까? 특히 서명의로의 『고기』를 염두에 둔 질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저되는 측면이 있다. 두 사서에서 고기에 대한 큰 흐름은 공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하나의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무줄하다는 국왕 인종의 평에도 불구하고 고기는 두 사서의 찬술에 적극 이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의문 중 하나는 『삼국사기』에 괴력난신이 많은 고기가 어떻게 적극 인용될 수 있었는가이다. 특히 『삼국사기』 경우에는 유교적인 합리주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산삭과 변증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sup>57)</sup> 『삼국유사』의 경우에는 삼국본사에 대응한 유사라는 측면에서, 또 종교적인 영험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찬자의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 『삼국사기』보다 용이했을 것이다.

### III. 단군 神異에 대한 변증과 고기

고기의 연구사는 조선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남구만(1629~1711)은 「동사변증」의 ‘단군’에서 삼한고기, 舊史 檀君記, 『삼국유사』를 인용하며 단군의 신이를 변증했다. 그는 먼저 구사 단군기를 인용해서 「응제시」 유형의 전승을 전제했다. 그것은 삼한고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구사 단군기가 삼한고기는 아닐지라도 이를 인용했거나, 그 영향으로 찬술된 문헌이라는 뜻이다. 이어서 『삼국유사』에 실린 고기의 내용이라고 하면서 개작이 이루어졌지만, 「고조선」조 고기 수준의 단군신화를 소개했다. 그는 「고조선」조의 고기와 삼한고기를 별개의 자료로 이해했다.

56) 『삼국유사』 권1, 기이1, 敍曰.

57) 여기에서 토풍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었던 시대적인 분위기를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단군에 대한 변증은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온 것이 환웅인지 단군인지, 단군의 어국과 壽, 즉위년과 산신이 된 시기, 단군의 아들로 부루와 주몽의 문제 등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중에 후자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거를 『필원잡기』에서 인용한 古記之說에 두고 있다.<sup>58)</sup> 『필원잡기』에서 인용한 고기는 「고조선」조의 고기와 다른 자료이다. 단군의 향년 1048년, 단군의 부루 출생 및 부루의 도산 조회는 『삼국유사』 소재 고기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단군을 변증하면서 거론한 고기는 삼한고기, 「고조선」조의 고기, 『필원잡기』를 통해 인용한 고기 등이다. 이들은 같은 성격의 고기류였지만 찬술시기를 달리하는 저술들이었거나, 『삼국유사』의 고기를 염두에 두고 (삼한)고기를 내세운 기록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태백산의 재등장이다. 「응제시」 유형을 처음 전한 권근은 물론 이후 『삼국사절요』, 『동국통감』에서는 “신인이 단독 아래로 내려와 나라사람들이 세워 임금이 되니 이가 단군”이라고 했다. 태백산은 환웅과 웅녀를 중심으로 하는 신이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전승의 합리적인 이해를 앞세웠던 고려 말 이후 조선 전기까지 「응제시」 유형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동국여지승람』에서 다시 등장한다. 태백산(묘향산), 구월산, 강화, 강동현의 단군묘까지를 망라했던 『동국여지승람』에서 “신인이 태백산 단독 아래로 내려왔다”는 「응제시」 유형의 전승은 평양의 건치연혁에 실렸다. 평양이 고조선의 첫 번째 도읍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후 「응제시」 유형을 소개한 사서에서 태백산은 오운(1540~1617)의 『동사찬요』에서 처음 확인된다.<sup>59)</sup> 남구만이 지칭한 구사 단군기가 이를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구사 단군기는 『동사찬요』의 「단군조선」 기록을 축약한 수준이다. 이로 미루어 「동사변증」에서의 삼한고기는 「응제시」 유형의 단군전승에서 태백산과 관련한 내용이 보완되는 과정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sup>60)</sup>

그는 『삼국유사』에 실린 고기의 설을 인용한다고 밝히고 고조선 건국신화를 실었다. 하지만 「고조선」조의 고기를 전재하지 않고 부분적인 개작이 이루어졌다.<sup>61)</sup> 그중에 하나가 “桓因 제석”을 “桓

58) 『약천집』 권29, 잡저, 동사변증, 단군 “...筆苑雜記引古記之說 云檀君與堯同日而立 至商武丁乙未入阿斯達山爲神 享年一千四十有八歲 又云檀君娶非西岬河伯之女 生子曰扶婁 是爲東扶餘王 至禹會諸侯於塗山 遣扶婁朝焉...”.

59) 『동사찬요』 권1 상, 단군조선.

60) 『연려실기술』과 『동전고』에서도 삼한고기는 확인된다. 『연려실기술』의 「단군조선」에서 구사 단군기와 삼한고기의 관계는 남구만의 「동사변증」의 그것과 같다. 『연려실기술』 별집 권19, 역대전고, 단군조선; 『동전고』 권12, 역대, 단군조선. 『연려실기술』에서는 또 東國古記를 인용해서 부여국을 서술하고 있는데, 동국고기는 삼한고기와 다른 자료이다. 같은 책, 濊國 “東國古記 扶餘國在玄免北古濊國 其印文曰濊王之印 國有古城曰濊城 南閭乃扶餘君 而非在於朝鮮界內者也”.

61) 이런 경향은 비밀비재하여 일일이 지적하기 어렵다. 古記를 古紀로 개작한 사례도 확인된다. 『사가집』 권5, 序, 歷代年表序; 『금남집』 권1, 東國通鑑論, 檀君朝鮮; 『청장관전서』 권26, 「기년아람」 하, 檀君朝鮮; 『오주

國 제석”으로 고친 것이다.<sup>62)</sup> 환인의 성격을 가리키는 분주로서의 제석이 ‘한국의 제석’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고조선 이전 사회의 정치체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환웅과 단군을 부자 관계가 아닌 천신 환인을 중심으로 형제 관계로 설정한 『동국여지승람』 유형과 환웅의 실체를 神市로 파악한 허목(1595~1682)에게서<sup>63)</sup>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 제석은 이후 한국을 역사적인 실체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에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

홍만중(1643~1725)도 단군을 서술하면서 『삼한고기』를 인용하였다. 그의 이해는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를 『삼한고기』로 특정했다는 점에서 남구만과 다르다. 특히 『삼한고기』를 신라 때 저작된 것으로, 혹은 안홍의 저작이라고도 한다는 설을 소개했다.<sup>64)</sup> 『삼국유사』에서 안홍의 저술로 확인되는 『동도성립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익(1681~1763)도 고기의 단군신화를 변증한 바 있다. 『성호사설』의 「삼성사」에서 『동국여지승람』에 인용된 고기의 단군신화를 인용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그가 고기의 자료적인 성격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東史는 김관의의 『편년(통재)』과 같은 종류로 俚俗을 뒤섞어 채집한 것이 매우 맹랑한데도 역사를 찬술하는 사람들이 취해 쓰고 있어 그 견식이 비루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sup>65)</sup> 고기는 그가 언급한 동사에 포함된다.

고기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한 연구자는 안정복(1712~1791)이다. 그는 동방의 역사편찬은 삼국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전은 모두 징험할 수 없기 때문에 단군의 사적은 고기, 기자의 사적은 중국사서의 여기저기에서 취해 『동사강목』을 찬술했다고 밝혔다. 단군의 사적은 단일서목으로서의 『고기』뿐만 아니라 동방의 고기류에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모두 황탄하고 정도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sup>66)</sup>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철저하게 실증적인 역사관을 견지했다. 그것은 부록에 「고이」와 「괴설변증」의 편목을 따로 두어<sup>67)</sup> 사실의 고증을 시도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사마광이

연문장전산고, 萬物篇, 鳥獸類, 獸, 熊羆辨證說.

62) 『약천집』 권29, 잡저, 동사변증, 단군 “…而今考三國遺事載古記之說 云昔有桓國帝釋 庶子桓雄受天符印三箇 率徒三千降太伯山頂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6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4, 평안도, 영변대도호부, 고적; 『기연』 권32, 외편, 東事1, 檀君世家.

64) 『해동이적』 하, 단군 “三國遺事引三韓古記云 上古九夷之初 有桓因帝釋者 … 三韓古記者 新羅所作 或云安弘所作”.

65) 『성호사설』 권26, 경사문, 三聖祠. 여기에서 이익이 인용하고 있는 단군신화는 『동국여지승람』 영변대도호부에 실린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4, 영변대도호부, 고적, 태백산. 하지만 그는 이를 개작과 축약을 통해 『성호사설』에 실었다. 비판적인 검토는 내용에 대한 것이고, 고기에 관한 것은 아니다.

66) 『동사강목』 제1상, “○東方初無君長…【按 東方古記等書 此言檀君事 皆荒誕不經…】”.

67) 『동사강목』, 범례, 災祥, “一. 舊史荒怪不經之說 一切刪去 別爲辨證一篇 而有以示僞而書者 有以傳疑而書者”.

『자치통감』을 지을 때 여러 책을 참고하여 같고 다른 점을 평하고 取舍에 뜻을 두어 典實하여 법다운 것만 뽑아 「고이」 30권을 지은 것을 모방해서 「동사고이」를 지었다고 밝혔다. 그것이 역사를 찬술하는 사람으로서 절실한 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sup>68)</sup> 또 「괴설변증」을 특별히 지은 이유에 대해서는 “역사를 찬술하는 사람들이 前代의 기록에 빠진 것을 민망하게 여겨 없던 일도 있었던 듯이 하여 상스럽고 정도에 맞지 않는 속설을 취해 正史에 편입시켜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인 듯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刊正”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sup>69)</sup> 그의 고기류에 대한 인식과 맥이 닿아 있다.

그런 가운데 「고조선」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기는 서명으로서의 『고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그 증거로 “당요 50년 경인년에 단군이 즉위했다는 『고기』의 기록에 대해 요임금 원년은 무진년으로 50년은 정사년이지 경인년이 아니”라는 일연의 自註를 들었다. 당요 50년 경인년은 『황국경세서』와 다르기 때문에 『고기』는 이와 다른 별개의 책이 틀림없다는 것이다.<sup>70)</sup> 그렇지만 단군의 신이는 탄망해서 변증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했다.<sup>71)</sup> 그는 『고기』를 인용해서 단군전승을 소개하면서도 壇君을 檀君으로 개작하고 『동국통감』에서 「응제시」 유형의 전승을 싣고 『고기』를 생략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고 밝혔다. 물론 그는 단군이 동국의 首出之君으로 신성한 덕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되었을 것이고, 신성한 탄생은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고기』의 단군 신이는 무리하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안정복은 『고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신라의 이속을 모아 고려에서 편찬한 것으로 작자는 승려일 것이라고 했다. 그 증거로 환인 제석이 『법화경』에서 나왔듯이 많은 인명과 지명이 불경에서 나왔고, 승려가 지은 『삼국유사』에 인용된 사실을 들었다.<sup>72)</sup>

안정복은 또 동국고기를 언급했다. “북부여가 단군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동국고기에 있다는 것

68) 『동사강목』 부록 상권 상, 고이.

69) 『동사강목』 부록 상권 중, 괴설변증. 그는 “대개 삼국의 경우는 문헌으로 밝힐 길이 없어 無知한 사람들이 지어낸 소문이니 굳이 책할 것도 없지만, 그것을 역사에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은 역사를 찬술하는 사람에게는 죄”라고 했다.

70) 『동사강목』 부록 상권 상, 고이, 檀君元年戊辰 當唐堯二十五年. 안정복은 『삼국유사』가 一然의 독립 찬술이 아니라 無極 등과 공동 저작한 것이었고, 단군 즉위년에 대한 分註도 『고기』의 것이 아니라 『삼국유사』 찬자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71) 이런 안정복의 비판은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에게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하는 논리로 역이용되었다. 白鳥庫吉, 앞의 글(b) 및 小田省吾, 앞의 글; 今西龍, 1929, 앞의 글 참조.

72) 『동사강목』 부록 상권 중, 괴설변증, 古記云 昔有桓因帝釋庶子桓雄. 단군의 신이를 수록한 『고기』에 대한 안정복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 되고 있다. “…羅麗之代 尊崇釋教 故其弊至此 作者者閱其無事可記 至或編於正史 使一區仁賢之方 學歸於語怪之科 可勝惜哉”. 성해응(1760~1839)도 『고기』가 승려로부터 전해진 것이라고 했다.

이다.<sup>73)</sup> 여기서 동국고기가 단일서목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사실 『삼국유사』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 「북부여」조에서 고기를 인용하여 북부여를 건국한 해모수가 아들 부루를 낳았다는 기록을 실고 있고, 「고구려」조에서는 “단군이 서하 하백의 딸과 관계하여 부루를 낳았다”는 전승을 『단군기』를 인용해서 분주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는 부루를 중심으로 해모수와 단군을 같은 존재로 파악한 것인데, 여기서 그가 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동국고기는 다름 아닌 『단군기』로 파악된다. 즉 동국고기는 앞서 언급한 동방고기와 같은 고기의 범칭으로 보이며, 이 항목에서의 동국고기는 『단군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안정복에게서 고기는 단일서목이기도 했지만, 동국(동방)의 옛 기록을 범칭하는 것이기도 했다.<sup>74)</sup>

그가 『단군기』를 지칭했던 동국고기는 「괴설변증」에서는 고기로 지칭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고기의 범위가 단군의 부루 출생에 한정된 『단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후 금와와 대소로의 계승과 고구려 대무신왕에게의 멸망까지로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삼국유사』 「북부여」와 「동부여」조에 인용된 고기와 『국사』 「고려본기」까지를 포함한 것이다.<sup>75)</sup> 최소한 이곳에서만만큼은 『단군기』와 고기를 동일시한 것인데, 그의 이런 관점은 고이편의 「夫妻當有二人」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된다.

B. 『삼국유사』에서는 『檀君記』를 인용해서 이르기를 “西河 河伯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夫妻를 낳았다”고 하였다. 또 北扶餘篇에 이르기를 “해모수가 북부여에 나라를 세우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루”라고 했으니, 이때는 한 선제 神爵 3년에 해당된다. 또 「高句麗記」를 인용하여 이르기를 “해모수가 하백의 딸을 사통하여 주몽을 낳았다고 했으니 부루와 주몽은 배다른 형제”라고 하였다. 또 王曆篇에 이르기를 “주몽은 단군의 아들”이라고 했다(『동사강목』 부록 상권 상, 고이, 「夫妻當有二人」).

이에 따르면, 단군의 부루와 주몽 출생, 해모수의 부루와 주몽 출생이라는 네 가지 에피소드는 編과 記를 달리하지만, 마치 『단군기』와 「고구려기」를 인용해서 정리한 것인 듯 보인다. 「고구려기」

73) 『동사강목』 부록 상권 상, 고이, 後漢書夫餘之誤.

74) 『동사강목』에서는 「泉蓋蘇文」에서 高麗古記를, 「甄萱別傳」에서 고기를 인용하여 羊皿과 견훤의 출생에 대해서도 실고 있다. 그 내용은 『삼국유사』의 고려고기와 고기의 것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정복은 “一說로 갖추어 두나 소위 羊皿의 설은 너무 허황해서 믿을 수 없다”거나, “本史인 『삼국사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異聞으로 기록해서 남긴다”고 하여 고기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동사강목』 부록 상권 상, 고이, 泉蓋蘇文 및 甄萱別傳.

75) 단군의 하백 딸과 혼인, 부루 출생과 북부여왕이 되었다는 고기의 기록은 유형원의 『(반계)수록』과 단군 역년 천여년을 제시한 권근의 견해를 빌려서 비판되고 있다. 『동사강목』 부록 상권 중, 괴설변증, 古記云 檀君娶非西岬河伯之女.

는 『삼국유사』에서의 『국사』 「고려본기」를 가리킨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북부여편에서 해모수가 부루를 낳았다는 기록의 전거가 『단군기』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기라는 사실이다. 즉 안정복은 『단군기』와 고기를 동일선상에서 이해했다.<sup>76)</sup> 이 경우에 고기는 앞서 「고조선」조의 『고기』와 같이 단일서명을 지칭할 가능성이 있다.<sup>77)</sup> 그러나 이 둘을 같은 문헌으로 파악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 「단군기」가 『고기』라는 책의 편목일 수 있고, 고기류에 『단군기』가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78)</sup>

이 같은 고기류의 동국문헌은 안정복에게 해동고기·동국고기로 통칭되었다. 그는 「三韓後說」과 「三國始起」에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상고할만한 文籍이 전해지지 않아 중국사에서 우리나라 일이 언급된 것과 신라의 遺籍, 해동고기의 類編, 동국고기의 단편적인 것들을 뽑아 썼다고 했다. 신라의 거칠부, 고구려의 이문진, 백제의 고흥이 기록한 국사는 듣지도 못했다고 하였다.<sup>79)</sup> 여기서 동국고기는 앞서 「고이」에서 언급된 그것과 같이 동국에서 전해오는 고기의 범칭을 가리킨다. 해동고기도 단일서목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또한 해동은 고기 앞에 덧붙여져 지역적인 범위를 지시하는 역할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해동고기와 동국고기는 해동(동국)에서 전해오던 고기류를 가리킨다고 하겠다.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찬술하면서 「고이」·「괴설변증」·「잡설」에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여러 고기류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했다. 그가 이해하고 있던 고기는 해동(동국)을 지역적인 범위를 하는 옛 기록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가 언급한 고기는 고기류라고 해야 정확하다. 이런 측면에서 『삼국유사』 「고구려」조에서 인용된 『단군기』 또한 고기류에 속했다. 그렇지만 그는 고기류에서도 서명으로서 『고기』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표적인 것인 「고조선」조와 「북부여」조에서의 『고기』였다. 이 두 사서는 같은 문헌이 아니라 같은 이름의 다른 책이

76) 그는 또 “북부여는 단군의 후손”이라는 『고기』의 기록을 인용해서 고조선의 강역을 遼地로 파악했다. 하지만 현재 전해지는 고기의 기록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삼국유사』에서의 「북부여」와 「고구려」조에서 인용된 단군과 해모수가 부루를 낳았다는 『단군기』와 고기의 기록을 통한 변증의 결과이다. 『동사강목』에서 사료를 통한 고증과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변증을 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사강목』 부록 하권, 檀君疆域考.

77) 이것은 후술할 최남선의 단군고기 이해에 토대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상정한다면, 여기서도 또 다른 두 가지 가능성으로 확대할 수 있다. 하나는 「고조선」조의 『고기』와 「북부여」조의 『고기』가 같은 책일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고기』라는 이름을 가진 별개의 책일 가능성이 있다.

78) 안정복은 단군=해모수가 아니라 해모수를 단군의 후예로 파악하여 부루 역시 단군의 아들인 부루와 해모수의 아들인 부루, 2명으로 파악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동사강목』 부록 상권 상, 고이, 夫妻當有二人 “…古來傳說荒誕 終無可信之文 今只從其近似者 夫妻則分爲二人而錄之”.

79) 『동사강목』 부록 상권 하, 잡설, 三韓後說 및 三國始起.

었다. 특히 그는 「고조선」조의 『고기』에 대해 신라의 이속을 모아 고려시대에 승려가 편찬한 사서로 추정했다.

C. 구해본 『고기』 1책은 바로 신라의 僮俗을 전한 것으로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부분 신령하고 괴이한 말들이고 僧家의 언어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순암집』 권10, 東史問答, 「上星湖先生書[丙子]」).

사실 그는 『동사강목』을 찬술하면서 『고기』를 직접 참고했다. 그가 구해본 『고기』는 “옛 기록”의 보통명사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1책’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 『고기』라는 서명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책은 고려시대에 찬술된 것이지만 내용은 신라의 이속을 담고 있어 신령하고 괴이한 말들이 많고, 반 정도가 불교의 언어로 된 것이었다. 자료 C를 유의할 때, 안정복이 『동사강목』에서 단군과 관련한 기록의 전거를 삼고 있던 것은 『삼국유사』를 통해서 본 『고기』와 그가 직접 얻어서 본 『고기』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연이 「고조선」조에서 이용한 『고기』와 그가 『동사강목』을 찬술하면서 단군 관련 기록에서 이용한 『고기』는 같은 성격의 문헌이었을 것이다.<sup>80)</sup> 그렇지만 『삼국유사』에서 인용된 고기가 단일서목이 아닌 복수의 고기류였듯이 『동사강목』에서의 고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삼국유사』에서 인용된 고기류와 자신이 구한 『고기』 1책을 함께 이용하며 고기의 기록에 대한 변증을 시도했다.

강재항(1689~1756)은 “조선은 옛 속신의 땅이었다”는 고기의 기록을 전제로 고조선과 속신의 관계를 논평했다.<sup>81)</sup> 이를 실은 고기 역시 처음이다. 이규경(1788~?)은 삼한의 시초를 전하는 『고기』를 작자를 알 수 없는 동국의 사서 중에 하나로 파악했다. 하지만 조작된 내용으로 믿을만한 것이 없어 단편적인 기록만 전하는 중국 역대의 사서로 고증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했다.<sup>82)</sup> 류득공(1748~1807)은 “대체로 승려가 찬술했기 때문에 허황되고 황당해서 사대부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sup>83)</sup> 윤행임(1762~1801)은 『고기』를 고구려의 『유기』에 대비되는 신라의 史體라고 했

80) 순암이 보았다는 『고기』와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응제시주』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기』는 동일한 것이었고, 그것은 『해동고기』를 지칭한다는 견해가 있다. 김상현, 2014, 앞의 글. 그렇지만 신라 때 찬술된 『신라수이전』 또는 『고본수이전』이 고려 전기에 증보된 것처럼 고기 역시 삼국 이후 고려 또는 조선시대로 전해져오면서 증보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광연, 2018, 「史書로서의 『삼국유사』와 『古記』 연구의 흐름」 『진단학보』 130, 38~41쪽. 안정복이 보았을 『고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81) 『입재집』 권9, 잡저, 東史評証, 肅慎三朝鮮高句麗三韓.

82)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4, 사적류1, 史籍總說, 東國諸家史類: 경사편5, 논사류1, 論史, 三國立國辨證說.

고, 정원용(1783~1873)은 『해동고기』를 삼국 역사를 대상으로 한 작자 미상의 고려시대 사서로 이해했다.

17~18세기 연구자들이 단군의 신이를 변증하면서 이용한 고기에는 범칭의 고기류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다. 『고기』도 적어도 두 종류 이상이었다.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찬술하면서 고려시대부터 유전되던 『고기』를 직접 참고하기도 했다. 그들은 삼한고기·해동고기와 동국고기를 거론하고 있는데, 안정복에게서 확인되는 해동고기와 동국고기는 특정서목으로 파악되지 않고 해동(동국)이라는 지역을 범위로 하는 고기의 범칭으로 파악된다. 이와 달리 홍만종에게서 확인되는 『삼한고기』는 특정서목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그가 이해한 『삼한고기』는 남구만의 그것과 같지 않았다. 남구만에게서 삼한고기는 「응제시」 유형의 단군전승에서 태백산이 보완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이해되었다. 반면 홍만종에게서 『삼한고기』는 「고조선」조의 『고기』로 특정되었고, 그 찬술 시기는 신라로 검토되었다.

그들이 신이로 가득 찬 고대의 역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그중에서도 단군의 신이는 으뜸이었다. 이를 전하는 고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서도 신이를 산삭할 수 없었던 것은 고려 이전의 역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국통감』에서 단군조선을 「외기」로 다룬 예와 비교할 수 있다. 안정복이 고기류에 전해지던 단군과 관련한 신이를 시종일관 황탄한 것으로 비판하면서도 이를 「고이」·「괴설변증」·「잡설」에서나마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시경』의 「生民詩」와 후세의 상서로운 일에는 僞妄한 것이 많다는 주자의 말을 참작한 결과였다.<sup>84)</sup> 변증은 비판적이지만 새롭게 이해하려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해서 신이를 전하는 고기도 새롭게 인식될 수 있었다.

#### IV. 단군 古記類와 「고조선」조의 고기

『삼국사기』에서의 고기에 대한 긍정론은 『삼국유사』에서도 전체적으로 지지되고 있지만, 연대 관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굳이 “幻과 鬼가 聖과 神으로 바뀌었다”는 이규보의 언급을 들지

83) 『해동역사』, 序文(柳得恭).

84) 『순암집』 권10, 東史問答, 上星湖先生書[丙子].

않더라도 기이편에서의 고기들은 괴력난신의 일에 불과한 전설을 신이로 가득 찬 역사적 사실로 전환시켰다. 특히 고조선의 건국신화에서 고기의 기록은 절대적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한 의문은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는 명칭인 “고기를 왜 전거로 채택했을까?”이다. 『삼국유사』에서 인용된 국내 문헌은 다양하다.<sup>85)</sup> 그중에는 『단군기』·『가락국기』·『본조사략』<sup>86)</sup>·『삼한토론집』·『三寶感通錄載』·『안국병법』 등 『삼국유사』에서만 확인되는 것도 상당하다. 반면에 한 종류의 전거가 여러 이름으로 실려 있어 독자가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같은 혼선은 고기에 이르러서 더욱 심하다.

기이편에서 고기는 신이사적을 전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중국 또는 국내 사서와 고기에 있었다. 「고조선」조에서의 『위서』와 고기, 「북부여」와 「고구려」조에서의 『국사』 「고려본기」와 고기, 「태종춘추공」조에서의 『당사』와 고기류, 「후백제견훤」조에서의 『삼국사』 본전과 고기 등의 관계이다. 고기는 전제의 사실을 신이사적을 통해 보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중에 「태종춘추공」조는 『당사』를 주된 사료로 하고, 본문에서 신라별기, 백제고기, 신라고전과 함께 고기를 인용했다. 분주에서는 鄉記를 인용했다. 고기에서는 신라에서 당에 도움을 요청한 군사들이 평양에 도착한 때를 총장 원년 무진년(668)으로 기록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삼국유사』 찬자는 “만약 총장 무진년이라면 李勣의 일인데 아래 글에 보이는 소정방은 오류다. 만약 (소)정방이라면 연호가 마땅히 용삭 2년 임술년(662)에 해당하니 고구려에 와서 평양을 포위한 때다”라고 분주했다.<sup>87)</sup> 고기의 연대관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그렇지만 『삼국유사』 찬자는 『당사』 및 제고기와 함께 고기의 기록을 신뢰했다.

이 구조는 「고조선」조의 사료 인용방법과 비교된다. 「태종춘추공」조의 『당사』는 「고조선」조의 『위서』와 「태종춘추공」조의 고기를 비롯한 여러 고기류는 「고조선」조의 고기와 비교할 수 있다. 단군왕검이 당요 50년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했다는 고기의 기록에 대해 『삼국유사』 찬자가 연대관을 비판한 것도 같다. 『삼국유사』 찬자의 고기에 대한 비판은 기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군 즉위년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두 항목에서 『삼국유사』 찬자가 보여준 고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연대관 비판은 같은 흐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고조선」조에 인용된 고기는 어떤 성격의 자료였을까? 『삼국유사』에서 인용된 다른 고기와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유사』에서 인용된 고기류에는 ○○고기와 같은

85) 『삼국유사』에 인용된 문헌은 중국 및 일본 서적 43종을 포함해서 185종에 이른다고 한다. 이범교, 2005,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86) 『본조사략』을 李齊賢의 『史略』으로 추정된 견해가 있다. 남동신, 2019,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성립사 연구 -기이(紀異)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61, 한국사상사학회, 230~234쪽.

87) 『삼국유사』 권1, 기이1, 태종춘추공.

고기류와 그렇지 않은 고기류가 있었다. 이들은 『삼국사기』에서 지칭하는 ‘제고기’의 범위에 있다. 고기를 ○○고기와 달리 검토해야 할 이유이다. 「고조선」조의 고기도 관청이 덧붙지 않은 고기였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의 검토 범위는 후자로 국한할 수 있다.

고려시대 단군과 관련한 사적을 전하는 전기에는 『삼국유사』에서의 고기와 『단군기』, 『제왕운기』에서의 본기와 『단군본기』가 확인된다. 『삼국유사』 「왕력」에서 고구려시조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고 한 미지의 자료, 『삼국사기』에서 평양이 선인왕검의 땅[宅]이라고 한 미지의 자료<sup>88)</sup> 또한 고기류에 포함할 수 있다. 이들은 큰 범주에서 단군 고기류로 묶을 수 있다.<sup>89)</sup> 특히 『제왕운기』에서 『(단군)본기』의 위치가 『수이전』과 함께 『국사』를 보완하는 전기류에 있음은<sup>90)</sup> 『삼국유사』에서의 고기와 비교된다. 단군 고기류에 대한 성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지만, 자료적인 한계로 쉽지 않다. 이 중에서 고기가 가지는 위상은 단연 뛰어나다.

「고조선」조는 본문에서 『위서』, 고기, 『당배구전』, 『통전』을 인용하며 구성되어 있고, 분주에서는 어떤 성격인지 특정할 수 없는 『經』과 『한서』가 인용되어 있다. 『위서』는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전제하고 있으며, 고기는 그 내용을 신이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고기는 『위서』와 補冊의 관계에 있다. 『당배구전』과 『통전』을 인용해서는 고조선 이후의 계승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또 『단군기』는 「고구려」조에서 분주로 인용되면서 하백녀를 중심으로 단군과 부루, 해모수와 주몽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고조선→북부여→고구려로의 역사계승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왕력」의 출처가 되는 미지의 고기도 마찬가지이다.<sup>91)</sup>

「고조선」조 고기의 성립연대에 대해서는 「북부여」조 고기에 등장하는 흘승골성에 대한 분주인 “大遼 醫州界”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다. 두 항목의 고기를 같은 자료로 파악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88) 그 내용은 대략 “평양의 선조는 삼한 이전의 仙人王儉으로 平壤神(西京神)으로도 불렸고, 그 壽는 1천년을 넘어 신선이 되었다”는 정도였다고 추측된다. 『趙延壽墓誌銘』(<http://db.history.go.kr/>); 김성환, 1998, 「高麗時代 平壤의 檀君傳承」 『문화사학』 10, 한국문화사학회, 123~142쪽.

89)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檀君古記』가 인용되어 있지만, 이것은 앞서의 자료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세종실록』 권154,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 靈異. 후고를 요한다.

90) 『제왕운기』 권하, 東國君王開國年代, “謹據國史 旁採各本紀與夫殊異傳所載 參諸堯舜已來經傳子史 去浮辭 取正理 張其事而詠 以明興亡年代 凡一千四百六十言”.

91)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왕력의 기록 출처가 『단군기』라는 견해도 있다. 박대재, 2015, 앞의 글, 15~16쪽. 또 왕력이 일연이 아닌 그 문도들이 덧붙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상현, 1985, 「삼국유사 왕력편 검토 -왕력 찬자에 대한 의문-」 『동양학』 15, 단군대학교 동양학연구원; 남동신, 2019, 위의 글. 이 경우에도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왕력의 기록 출처가 미지의 고기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고기는 일연이 아닌 그 문도들이 이용했을 것으로 『삼국유사』 찬술 이후 고기의 유통상황과 관련해서 추론을 더할 수 있다.

그 시기를 고려와 요나라의 관계에 주목하여 11세기 후반 또는 1019년부터 1125년 사이로<sup>92)</sup> 설정했다. 그런데 「북부여」조에서의 고기는 북부여의 구성을 오로지 담당했다. 그렇지만 이 추론은 「북부여」조 고기에만 해당된다. 「북부여」조 고기에서는 해모수가 흘승골성에 내려와 도움을 정해 북부여라고 했고, 후에 동명제가 북부여를 이어 졸본주에 도읍하여 졸본부여라 하고 고구려 시조가 되었다고 했다. 『삼국사기』에서는 『통전』을 인용해서 주몽이 북부여로부터 동남쪽으로 나아가 보슬수를 건너 흘승골성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국호를 구려라고 했다고 전제했다.<sup>93)</sup> 또 바로 고기를 인용하여 주몽이 부여에서 난을 피해 도망하여 졸본에 이르렀다고 했다.<sup>94)</sup> 두 사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기는 같은 자료 또는 같은 성격의 자료일까? 같은 자료라면 「북부여」조에 인용된 고기의 기록을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에서 대폭 축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두 사서에서의 만파식적에 대한 서술의 예와 같다.

흘승골성에 대한 비정에서 『삼국사기』 찬자는 졸본과 같은 곳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한서지』와 『주례』의 無慮와 북진 의무려산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이를 증명하고자 했다. 그런데 『국사』 「고려본기」를 인용해서 서술한 「고구려」조에서 졸본주는 『삼국유사』 찬자에 의해 “현토군 지역”이라는 분주가 이루어졌다.<sup>95)</sup> 큰 범위에서 현토군 지역에 흘승골성과 졸본주가 위치했지만, 두 곳은 다른 장소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삼국사기』와 다르다. 흘승골성과 졸본주와 관련해서 두 사서에서 인용한 고기는 최소한 같은 성격의 자료로 보이지만, 그 비정에서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를 따르지 않고 재해석을 하였다. 즉 두 사서에서의 고기가 같은 성격의 것일지라도 흘승골성에 대한 분주가 고기의 原註가 아니고 『삼국사기』 지리지의 기록을 참고한 『삼국유사』 찬자의 것이라고 한다면,<sup>96)</sup> 이를 근거로 고기의 성립연대에 접근하려는 추론은 접어야 한다.

단군의 후계와 관련된 전거들의 관계에서 「고조선」과 「북부여」조의 고기를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주몽을 중심으로 그 부계로서 단군과 해모수, 부루를 중심으로 그 부계로서 단군과 해모수와 관련된 전승이 있다. 단군-주몽은 왕력에서, 해모수-주몽은 『국사』 「고려본기」, 해모수-부루는 「북부여」조 고기, 단군-부루는 『단군기』로 그 전거가 확보된다.<sup>97)</sup> 하지만 정작 『삼국유사』 찬자가

92) 三品彰英, 1975, 『三國遺事考證』 上, 塙書房, 375쪽; 서영대, 1997, 「高句麗王室 始祖神話의 類型」 『만경이충희선생화갑기념 동서문화논총』 II, 68~69쪽.

93) 「고구려본기」에서도 주몽이 졸본천에 이르렀다는 기록에 “魏書云 至紇升骨城”이라고 분주되었다. 『삼국사기』 권31, 고구려본기1, 동명성왕. 『통전』·『위서』 등 중국사서에서는 주몽의 첫 도읍을 흘승골성으로, 고기 등의 국내자료에서는 졸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94)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고구려.

95) 『삼국유사』 권1, 기이1, 고구려.

96)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고구려; 이강래, 1997, 앞의 책, 187쪽.

이야기하려는 단군-주몽은 전거가 밝혀지지 못한 미지의 고기를 전거로 한다. 때문에 「고구려」조에서 다소 무리한 변증을 통해 부루와 주몽을 이모형제로 하는 단군과 해모수를 동일인으로 파악하게 하였다. 각 전승의 시계열적인 이해에서 동부여의 부루와 고구려의 주몽이 한 세대 정도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제까지는 단군-부루 전승이 단군-주몽 전승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하지만 이 전승들이 만들어진 목적이 단군-주몽의 역사계승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자보다 후자가 먼저 만들어졌을 수 있다. 즉 ① 「고조선」조 고기→ ② 「북부여」조 고기→ ③ 평양의 선인왕검지택→ ④ 왕력의 단군-주몽→ ⑤ 『국사』 「고려본기」→ ⑥ 『단군기』의 순으로 전승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단군-주몽의 부자관계는 『삼국유사』 찬자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미지의 고기 찬자들 역시 하고자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군기』와 왕력에서 단군-주몽의 전거는 같을 수 없다. 이것은 고조선-고구려로 이어지는 4가지 종류의 전거가 모두 각각이었음을 의미한다. 또 단군 고기류에서 『단군기』와 왕력에서 미지의 고기는<sup>98)</sup> 「고조선」조의 고기와 비교하여 불완전하지만 후계를 중심으로 한 성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99)</sup>

「북부여」조에서는 흡승골성에 도읍한 북부여의 천제 해모수가 부루를 낳았고, 해부루는 동부여로 옮기고 그 자리에서 북부여를 이은 동명제가 졸본부여를 세웠다고 했다. 해모수의 아들로 부루가 있을 뿐 동명은 해모수와 혈연관계로의 연결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해모수와 주몽의 부자 관계는 『국사』 「고려본기」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와 하백의 딸인 유화 사이에서 주몽이 출생했다고 했다. 『삼국유사』 찬자는 여기에서 문제가 꼬였다는 것을 알았다. 고기에서는 해모수가 부루를 낳았다고 했는데, 「고려본기」에서는 또 해모수와 하백의 딸 사이에 주몽을 낳았다고 했으니 해모수는 부루와 주몽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주몽의 어머니는 하백의 딸 유화였지만, 부루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삼국유사』 찬자가 의도한 것은 고조선에서 북부여, 동부여를 거쳐 고구려에 이르는 역사계승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려면 고조선과 북부여를 잇는 고리와 북부여와 고구려를 잇는 고리가 필요했다. 후자는 『국사』 「고려본기」로 해소될 수 있었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답이 없어 보였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단군이 서하 하백의 딸과 상관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부루라고 했다”

97) 「고조선」조에는 단군의 후계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단군이 후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당대에 끊어진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98) 今西龍도 왕력의 주몽에 대한 ‘檀君之子’와 「단군기」를 인용한 기록에 대해 일연 이후 後人에 의한 보완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今西龍, 1929, 앞의 글.

99) 최남선은 「고조선」조의 고기를 단군고기로 특정하고, 제반 단군 고기류의 전승은 실전된 『단군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 즉 「고조선」조의 고기 역시 『단군기』의 일부라고 했다. 崔南善, 1954, 「檀君古記箋釋」 『사상계』 2(전성곤·허용호 옮김, 2013, 『단군론』, 경인문화사, 265~310쪽).

는 『단군기』의 기록이다. 하백의 딸을 중심으로 단군이 낳은 아들 부루는 동부여를 세우고, 해모수가 낳은 아들 주몽은 고구려를 세우는 것이다. 여기까지만으로는 부루와 주몽은 하백녀를 중심으로 異父兄弟로 파악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삼국유사』 찬자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왕력에서처럼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것을 변증해야 했다. 고기에서는 해모수가 부루를 낳았다고 했기 때문에 『단군기』의 단군과 고기의 해모수는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생겨 단군(해모수)은 부루와 주몽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삼국유사』 찬자는 부루와 주몽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단군기』의 서하 하백의 딸과 『국사』 「고려본기」의 하백녀 유희를 같은 존재로 보지 않았다. 즉 부루와 주몽을 어머니가 다른 형제(異母兄弟)일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을 동일한 존재로 파악하는데서 오는 세대 간의 중첩 등에 있었을 것이다. 다소 무리한 변증이었지만, 어찌되었건 이로써 단군(해모수)→부루·주몽으로 이어지는 고조선→북부여→동부여·고구려의 역사계승관계가 성립되었다. 『삼국유사』 찬자가 기이편의 모두에서 「고조선」·「북부여」조를 설정하여 각각의 고기를 통해 이를 서술하고 「동부여」·「고구려」조에서 『국사』 「고려본기」에 그 위치를 넘긴 배경이 여기에 있었다.

「고조선」조의 고기에 대한 실체적 접근은 주로 해동고기·삼한고기 등 고기의 명칭으로 구체성을 띠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고기가 “옛 기록”이라 하여 시대성은 보장할 수 있었지만, 보통명사의 성격을 가져 사서의 고유명칭으로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다음은 삼국 각국의 이름이 덧붙여진 고기의 명칭은 그 이전의 역사를 염두에 둘 때 부족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사서로서의 명칭도 필요했다. 『삼국사기』에서 확인되는 해동고기와 삼한고기, 그리고 이와 함께 아방의 지칭으로 사용된 동국을 덧붙인 동국고기는 이런 측면에서 우선 거론될 수 있는 서명이었다. 남구만과 홍만종 등에게 삼한고기 또는 신라 안흥의 『삼한고기』가, 안정복에게 해동고기가 검토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동고기와<sup>100)</sup> 삼한고기에<sup>101)</sup> 대해서는 『삼국사기』의 고기론으로 확대되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실체적 접근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명으로 파악한 쪽에서는 한 자료의 다른 이름이라는 견해부터<sup>102)</sup> 해동고기와 본국고기를 일치시키고 광개토왕 때 편찬되어

100) 김영경, 1984,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이는 “고기”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4-4. 그는 『삼국사기』에서의 고기를 『삼국유사』에서의 고기와 다른 기전체 사서로 파악했다.

101) 김정배, 1987, 「단군기사와 관련된 “고기”의 성격」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02) 『증보문헌비고』 권244, 예문고3 “三韓古記 撰人姓名未考 三國史亦多引用 疑與海東古記同爲一書”. 이로 미루어 『증보문헌비고』 찬자는 『삼국사기』에 인용된 古記를 三韓古記 또는 海東古記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주된 사료로 이용되었다는 견해,<sup>103)</sup> 『구삼국사』로 파악한 견해<sup>104)</sup> 등이 있다. “옛 기록”의 범칭이라는 쪽에서는 ‘야방’과 관련해서 검토했다. 14세기 전반에 김태현(1261~1330)이 동인의 시문을 모아 찬술한 『동국문감』이 『해동문감』으로도 불렸다는 점에서<sup>105)</sup> 해동·삼한·동국은 상호 교섭이 가능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이 서명이든 그렇지 않든 해동고기와 삼한고기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에 대한 다른 명칭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을 듯싶다.

『삼국유사』 찬술에 『삼국사기』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일연 또한 『삼국사기』에 언급된 해동고기와 삼한고기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가 이들을 서명으로 이해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sup>106)</sup> 『삼국사기』에서 해동고기는 고구려 태조대왕의 양위와 죽음에 대해 『후한서』와 비교되는 위치에서 인용되었고 줄여서 고기라고도 칭해졌다. 또 삼한고기는 『책부원구』에 전하는 백제왕 모도에 대한 기록을 부정하는 위치에 있다.<sup>107)</sup> 그 인용사례들은 중국문헌에서 확인되지 않고 국내문헌에서만 확인되는 것이었다. 이들이 서명이었더라도 『삼국유사』에서 전거로서 고기의 인용사례를 볼 때, 일연은 “해동(삼한)의 고기류”라는 범칭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신라고기·백제고기·고려고기 등을 직접 전거로 제시했다. 해동고기·삼한고기와는 다른 접근방식이다. 그렇다고 이들도 서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중고기’의 사례와 같이 신라고기의 경우에 “신라와 관련된 옛 기록” 정도의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고기로 불린 자료군들은 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특히 각국을 칭한 고기들이 그와 관련된 고기 정도의 범칭이라면, 「고조선」과 「북부여」조에 인용된 고기는 고조선고기 또는 단군고기, 혹은 (북)부여고기로

103) 신동하, 1995,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인용자료에 관한 일고」 『삼국사기의 원전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동고기와 본국고기를 고구려의 『신집』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 高寬敏, 앞의 책.

104) 임기환, 2006, 「고구려본기 전거자료의 계통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2.

105) 『고려사』 권110, 열전23, 김태현 및 「김태현묘지명」(1330); 「김광재묘지명」(1363) (<http://db.history.go.kr/>).

106) 성해응과 이유원(1814~1888)은 고기를 인용해서 五國城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연경재전집』 외집 권 49, 지리류, 西北邊界考; 『임하필기』 권11, 문헌지장편, 五國城. 그런데 정약용은 이를 해동고기에서 인용했다고 밝혔다. 『여유당전서』 권6, 지리지 권5, 대동수경1, 溲水2. 정약용에게서 고기와 해동고기는 하나의 자료를 두고 불린 명칭이다. 해동과 고기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107)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5, 태조대왕 94년 12월; 권33, 잡지1, 제사;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23년 11월. 『삼국사기』에서 해동고기가 고구려, 삼한고기가 백제와 관련해서 서술되었음에 착안해서 해동고기는 고구려본기의 원전이 된 것으로 이해된 『신집』, 삼한고기는 백제본기의 원전이 된 것으로 이해된 『구삼국사』로 검토되기도 했다. 高寬敏, 앞의 책.

불러도 괜찮았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 백제고기와 고기가 함께 인용된 항목이 『삼국유사』에서 확인되고 있음에서 고기는 이들과 분명 구분되고 있었다.

「고조선」조의 고기를 『단군고기』로 파악한 견해가 있었다.<sup>108)</sup> 여기에서는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를 고려 문종 말에서 예종 무렵까지 40~50년(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 「고조선」조의 고기를 인종부터 고종 무렵에 찬술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때가 왕검선인에 단군이라는 호칭이 붙게 된 때라고 했다.<sup>109)</sup> 「고조선」조의 『고기』를 제1의 『단군고기』, 『세종실록지리지』에 실린 것을 제2의 『단군고기』로 구분했다. 또 『단군기』는 제1의 『단군고기』와 완전히 다른 전설을 싣고 있기 때문에 같은 책일 수 없고, 오히려 제2의 『단군고기』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책으로 검토했다. 제1의 『단군고기』에 실린 단군전설이 『단군기』에 비해 원시적인 면이 다분하고 지나치게 꾸민 것이 적다고 했다. 제2의 『단군고기』는 조선 태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되는 금서들과 같은 도참 관련 서적으로 파악했다. 『삼국유사』에서 인용된 고기류에 대한 『고기』로의 접근은 안정복이 보았다는 『고기』를 염두에 둔 것이었고, 「고조선」조의 고기를 제1의 『단군고기』로 파악한 것은 『삼국유사』에서 고려고기 등 각국 고기의 존재와 『세종실록지리지』에서의 『단군고기』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런데 「고조선」조의 고기는 기이편 다른 항목의 고기와 비교하여 “단군전승을 전하고 있는 옛 기록”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파악된다.<sup>110)</sup> 그런 점에서 『단군고기』의 설정은 일견 주목되지만, 그것은 구분을 위한 분류였다. 더욱이 『세종실록지리지』에서의 『단군고기』를 당시 금서목록에 오른 도참관련서적으로 파악한 것은 동의되지 않는다. 태종과 세조 때 금서목록에서 확인되는 『神祕集』, 『고조선비사』를 염두에 둔 것인데, 이들은 『신지비사』에 대한 이칭이었다.<sup>111)</sup> 『단군고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시라도리 쿠라키치와 이마니시 류에게서 확인되듯이 그들은 『필원잡기』와 『연려실기술』에서 고기 또는 삼한고기를 전거로 실은 단군전승을 삼국시대의 것으로 판단했다. 『고기』 유형보다 「응제시」 유형의 단군전승을 古型으로 파악했다.<sup>112)</sup> 단군전승의 변화과정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응제시」의 전승이 역사적 사실에 근사하다는 판단의 결과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조선」조 고기의

108) 今西龍, 1929, 앞의 글.

109) 이것은 『위서』와 함께 고기의 실재를 의심하여 단군신화 자체를 일연의 창작으로 단정했던 초기의 연구와 다르다. 今西龍, 1910, 앞의 글.

110) 김성환, 1999, 「단군전승의 유형(I)」 『중앙사론』 12,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김성환, 2002, 앞의 책 재수록).

111) 김성환, 2022, 「단군, 신화에서 역사로」 『동북아역사논총』 76, 동북아역사재단.

112) 白鳥庫吉(a), 앞의 글; 今西龍, 1929, 앞의 글.

기록은 佛說에 근거해서 승려가 허구로 지어낸 가공의 仙譚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군즉위년에 대한 일연의 비판적인 自註는 「고조선」조 고기의 기록이 『삼국유사』 찬자의 창작일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sup>113)</sup> 그런 점에서도 고기 기록의 성립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이것이 단군신화의 형성시기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신화의 채록시기와 관련한 문제이다. 이를 『구삼국사』와 관련해서 논의할 때는 『구삼국사』의 편찬시기가 그때가 될 것이고, 서명으로서 해동고기와 관련해서 검토할 때는 그만큼 더 소급될 수 있다. 하지만 「고조선」조의 고기가 “단군전승을 전하고 있는 옛 기록” 정도로 검토된다면, 그 시기를 추측할 단서조차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북부여」조 고기와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려전기로 검토하기도 하지만, 역시 적절한 추론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조선」조 고기가 11세기 후반 또는 1019년부터 1125년 사이에 찬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부여」조 고기보다 앞서 성립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구삼국사』와 관련해서 추측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런 점에서 고려 건국 이전 그 지향에서 숙신·변한과 함께 조선이 거론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미 일통삼한을 넘어 고조선에서 비롯하는 역사계승의식의 존재를 염두에 둘 수 있다.<sup>114)</sup> 다만 그것이 고려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는지의 여부와는 별개이다. 고려시대에 유통되었던 많은 고기류의 자료에는 단군 고기류로 묶을 수 있는 5~6종의 자료군들이 있었고, 「고조선」조의 고기는 단군 고기류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였다. 그것은 이후 고려 전기 왕실의 延基業과 관련한 도참의 영향으로 내용의 변화도 수반되었다.<sup>115)</sup>

조선 후기 이후 그 성격을 해동고기·삼한고기 등과 관련지어 검토하기도 했지만, 현재의 자료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추론은 어렵다. 고려 건국 전후 성립되어 유전된 「고조선」조의 고기로 접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고조선」조의 고기를 서명, 또는 특정 자료로 파악하려는 우리의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향후 정치한 논리와 새로운 자료의 발굴로 그 성

113) 今西龍은 『세종실록지리지』의 『단군고기』에서 그 시기를 “與唐堯同日而立”으로 기록한 것은 단군즉위시기가 요임금 즉위 50년 경인년이라고 한 「고조선」조의 고기 기록을 『단군고기』 찬자가 달갑게 않게 여겨 『위서』에서의 “與高同時”를 끌어들이어 왜곡시킨 결과라고 했다. 今西龍, 1929, 앞의 글.

114) 이런 측면에서 고기에서 추출된 단군역년 3408년은 고려가 건국된 918년이어서 고기의 성립연대가 고려 건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박대재, 2015, 앞의 글 및 2022, 앞의 글. 여기에서는 또 『제왕운기』에서의 단군역년 3288년(3268년으로 보정)도 고려가 신라의 정통성을 이은 935년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두 자료에서의 역년이 모두 고려의 건국 및 일통삼한과 관련지어 설명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5) 김성환, 2015,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7.

격과 내용에 대한 분석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 V. 맺음말

「고조선」조의 고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3백년 이상의 연구사가 축적되어 있다. 그간에 여러 검토와 비판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성격부터 성립시기에 이르기까지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만큼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 크게는 고려시대에 유통되었던 고기류의 정보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공유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하며, 『삼국사기』에서 고기가 가지는 정보와 흐름이 『삼국유사』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삼국유사』에서는 곳곳에 전거로 등장하는 고기의 대략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기이편에서 인용된 고기류, 그리고 그 내용을 「고조선」조의 고기와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거시적인 틀에서의 접근이라면, 미시적인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고기가 서명인지의 여부, 그렇지 않다면 불완전한 사서를 전거로 인용하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고려 상고사의 첫머리에 등장시킨 이유, 고기의 성립시기와 배경, 고기에서 담고 있는 고조선에 대한 담론, 단군신화에 대한 세세한 분석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조선」조의 고기가 담고 있는 단군신화는 단군의 어국과 향국을 역년으로 접근한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이색과 권근 등에 의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변증을 통해 해석되어왔다. 17~18세기에는 본격적인 변증이 이루어졌다. 성리학적인 시각을 통해 들여다본 그 신화는 황탄하고 佛說에 둘러싸인 것으로 비판되었다. 괴력난설이 일연을 통해 神異로 전환된 앞 시대의 시선과 전혀 달랐다. 남구만·홍만중·안정복 등은 빼놓을 수 없는 연구자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비판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은 단군신화를 조선 상고사의 서두에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조선」조의 고기는 삼한고기·해동고기·동국고기와 관련해서 검토되었고, 홍만중은 신라 안흥의 『삼한고기』로 특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안정복은 「고조선」조의 고기가 「북부여」조의 고기와도 준별되는 자료로 파악했다. 실제로 그는 「고조선」조의 고기의 내용이 실린 『고기』 1책을 구해 『동사강목』의 찬술에 이용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17~18세기 고기의 연구성과는 일제강점기 식민어용학자들에 의해 고조선 부정론에 역이용되었다. 그들이 대중교의 동향에 유의하고 있었듯이 그 관심은 당시 대중교운동으로 고조된

단군에 대한 열기를 꺾고 내선일체·일선동화를 위해 일본건국신화 안에서 고조선 건국신화를 재편하거나, 佛說에 근거해서 승려가 허구로 지어낸 가공의 仙譚으로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하는데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필원잡기』와 『연려실기술』에서 고기 또는 삼한고기를 전거로 실은 단군전승을 삼국시대의 것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것은 17~18세기 연구자들에게서 「고조선」조 고기의 실체로 검토된 삼한고기·해동고기·동국고기를 대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

「고조선」조 고기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근래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여전히 그 실체를 삼한고기 또는 해동고기로 검토하는 시각도 있고, 단일서명으로서의 『고기』로 검토하는 견해도 있다. “옛 기록”이라는 자의를 존중하는 견해도 있다. 그 성립시기에 대해서도 『구삼국사』와 관련해서 검토되기도 하고, 「북부여」조 고기에서 분주된 “大遼 醫州界”와 관련하여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전반으로 검토되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고려의 건국을 전후한 시기에 성립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고려시대에 유통되었던 고기류의 자료에는 단군 고기류로 묶을 수 있는 5~6종의 자료군이 있었다. 그 중에서 「고조선」조의 고기가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자료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고조선」조에서 고기는 『위서』와 보합의 관계에 있다. 『위서』가 고조선의 역사적인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면, 고기는 이를 신이사적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기의 자료적 성격에 대해서는 선불리 규정지을 수 없을 듯하다. 향후 정치한 논리와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 1. 자료

『사기』,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 『증보문헌비고』, 『동사찬요』, 『동사강목』  
『동국이상국전집』, 『해동고승전』, 『보한집』, 『동문선』, 『양촌집』, 『사가집』, 『금남집』, 『약천집』, 『성호사설』, 『해동이적』, 『순암집』, 『입재집』, 『청장관전서』, 『연려실기술』,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경재전집』, 『임하필기』, 『여유당전서』

### 2. 저서

강경구, 1997, 『삼국사기 원전 연구』, 학연문화사.  
高寬敏, 1996, 『「三國史記」の原典的研究』, 雄山閣.  
김성환, 2002, 『高麗時代 檀君傳承과 認識』, 경인문화사.  
三品彰英, 1975, 『三國遺事考證』上, 堉書房.  
이강래, 1997, 『三國史記 典據論』, 민족사.  
이강래, 2007, 『三國史記 形成論』, 신서원.  
이강래, 2011, 『삼국사기 인식론』, 일지사.  
이강래, 2021, 『한국 고대의 시선과 시각』, 주류성.  
이범교, 2005,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민족사.  
전덕재, 2018, 『삼국사기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전덕재, 2021, 『삼국사기 잡지 열전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전성근·허용호 옮김, 2013, 『단군론』, 경인문화사.

### 3. 논문

高橋亨, 1955, 「三國遺事の註及檀君傳説の發展」 『朝鮮學報』 7, 朝鮮學會.  
곽승훈, 2011, 「『殊異傳』의 撰述本과 傳承 연구」 『진단학보』 111, 진단학회.  
今西龍, 1910, 「檀君의 說話に就て」 『歴史地理臨時増刊朝鮮號』, 日本歴史地理學會.  
今西龍, 1929, 「檀君考」 『靑邱說叢』.  
김갑동, 2019, 「고려의 7대사적과 태조실록」 『사학연구』 133, 한국사학회.  
김상현, 1982, 「『三國遺事』의 刊行과 流通」 『한국사연구』 38, 한국사연구회.  
김상현, 1985, 「삼국유사 왕력편 검토 -왕력 찬자에 대한 의문-」 『동양학』 1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김상현, 2014, 「『古記』의 사학사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74, 한국고대사학회.
- 김성환, 1998, 「高麗時代 平壤의 檀君傳承」 『문화사학』 10, 한국문화사학회.
- 김성환, 1999, 「단군전승의 유형(I)」 『중앙사론』 12, 중앙사학연구회.
- 김성환, 1999, 「檀君傳承의 類型(II)」 『사학지』 32, 단국사학회.
- 김성환, 2015,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7, 동북아역사재단.
- 김성환, 2022, 「단군, 신화에서 역사로」 『동북아역사논총』 76, 동북아역사재단.
- 김영경, 1984,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이는 “고기”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4-4.
- 김정배, 1987, 「단군기사와 관련된 “고기”의 성격」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那珂通世, 1894, 「朝鮮古史考-朝鮮古史史籍考」 『史學雜誌』 5-3, 日本史學會.
- 남동신, 2007, 「三國遺事의 史書로서의 特性」 『불교학연구』 16, 불교학연구회.
- 남동신, 2019,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성립사 연구 -기이(紀異)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61, 한국사상사학회.
- 박광연, 2018, 「史書로서의 『삼국유사』와 『古記』 연구의 흐름」 『진단학보』 130, 진단학회.
- 박대재, 2001, 「《三國遺事》古朝鮮條 인용 《魏書》論」 『한국사연구』 112, 한국사연구회.
- 박대재, 2015, 「檀君紀元和 古記」 『한국사학보』 61, 고려사학회.
- 박대재, 2022, 「이승휴의 국사편년과 역사의식」 『민족문화논총』 9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白鳥庫吉, 1894,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 學習院大學.
- 白鳥庫吉, 1894, 「朝鮮의 古傳說考」 『史學雜誌』 5-12, 日本史學會.
- 서영대, 1997, 「高句麗王室 始祖神話의 類型」 『만경이충희선생화갑기념 동서문화논총』 II, 인하대 동양사연구실.
- 小田省吾, 1926, 「謂ゆる檀君傳説に就て」 『文教の朝鮮』 2, 朝鮮教育會.
- 신동하, 1995,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인용자료에 관한 일고」 『삼국사기의 원전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강래, 1992, 「舊三國史論에 대한 제문제 -특히《三國史記》와 관련하여-」 『한국고대사연구』 5, 한국고대사학회.
- 이강래, 2005, 「『三國遺事』의 史書的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40, 한국고대사학회.
- 이강래, 2005,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왕대력 비교 연구」 『한국사학보』 21, 고려사학회.
- 李基白, 1978, 「金大問과 그의 史學」 『歷史學報』 77, 역사학회.
- 임기환, 2006, 「고구려본기 전거자료의 계통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2, 한국고대사학회.
- 崔南善, 1954, 「檀君古記箋釋」 『사상계』 2.

ABSTRACT

## The Debate on "Gogi(古記)" of the Ancient Joseon Article in *Samguk-yusa*

Kim, Sung-Hwan

For over 300 years, researchers have accumulated historical examinations of the Ancient Joseon period's Gogi(古記). During this time, various studies and criticisms have been put forth, but it has proven impossible to form a consensus regarding the work's characteristics or even the date of its composition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surrounding issues.

The Tangun mythology, encompassing the Gogi of the Ancient Joseon, seems to have been confirmed by examples provided by Gweon Geun(1352~1409), who wrote about Tangun's dynastic period, approaching the topic from the years of Tangun's reign. Scholars have thus used his examples, dating as they are from a relatively early period, to interpret this mythos. During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these examples took on a more dynamic aspect. Scholars criticized scrutinizing the mythology from the viewpoint of Neo-Confucianism as both absurd and mired in Buddhist doctrine. This was an entirely different approach from that of Iryeon(1206~1289), a Buddhist monk who attempted to reframe the wonders about ghosts from a previous age into a more acceptable depiction, divinity, choosing to focus on the story's sacred and heroic aspects. The scholars, though, did not content themselves even with this criticism; their concerns went further, centering around the complete reorganization of the Tangun mythos going back to the beginnings of ancient histo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government-sponsored scholars distorted the results of Ancient Joseon's Gogi conducted during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to suit their own ends. Typical examples included scholars such as Shiradori Kurakichi, Imanishi Ryu, and others. Through their writings, Gogi of the Ancient Joseon article was reduced to a mere hermit tale based on Buddhist teachings written by monks.

One scholarly viewpoint advocates the examination of the true nature of the Ancient Joseon

article's Gogi using the *Samhan-gogi* and *Haedong-gogi*. Another calls for the study of the Gogi based on the title of the work itself, while yet another opinion involves evaluating the title's underlying Chinese character, which translates literally to "old record". Studies have been don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date of composition and Samguk-sa. Related to Uiju county boundary in Liao Dynasty, part of the records of Northern Buyeo article, one can also see a separate examination conducted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eleventh century to the first half of the twelfth century into the Gogi's connection to the formation of the Goryeo dynasty.

Among the historical documents circulated during the Goryeo dynasty, scholars were able to extract specific documents concerning Tangun and compile them into the data group. These were composed of the Ancient Joseon Gogi, *Tangungi*, *Tangun-bongi*, and an ancient record of an unknown title appearing in Wangryeok, along with others. Among these, the Ancient Joseon article's Gogi was confirmed to have been the standout document for a time. A mutual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Ancient Joseon article's Gogi and *Wiseo*, but a new explanatory approach is needed to address all of the weaknesses inherent in the numerous hypotheses and inferences regarding the nature of this material.

Key words : Gogi of the Ancient Joseon Article, Extract Specific Documents Concerning Tangun, <i>Samguk-yusa</i> , <i>Tangungi</i> , <i>Samhan-gogi</i> , <i>Haedong-gogi</i> , Japanese Government-Sponsored Scholars
--